

#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

참살이 (웰빙) 보고서

앤지 L. 앤드리어트 박사  
수전 바넷 박사  
2021년 7월



RESEARCH  
SERVICES

# 왜 모든 미국장로교 목회자들에게 실시하는가? 왜 지금인가?

성도, 교회 직원, 중간공의회, 교단 지도자들은 리서치 서비스에 목회자들에 대한 질문을 자주 묻는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하기 어려웠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이와 같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페리 장 박사가 이 작업을 맡았다. 이 보고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것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질문들도 제기하고 있다. 새 설문조사는 소수인종 목회자, 은퇴 목회자, 이종직 목회자, 위임 목회 장로, "파트 타임" 목회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초유의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의 성공은 많은 협력 기관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협력 기관들 중 몇몇은 다음과 같다.

- 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면, 연금국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인 Call to Health이 건강 증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었다.
- 미국장로교 출판국은 이 설문조사에 다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후 구매에 있어 할인을 제공했다.
- 총회사무국, 선교국, 재단국의 의사소통 직원들은 설문조사 링크가 들어있는 글을 작성했다.
- 총회 중간공의회 관계 사무처 직원들은 그 소식지에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알렸다.
- 교단 차원의 몇몇 위원회는 설문조사 링크를 그 구성원들에게 알렸다.
- 모든 기관의 데이터 그룹의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미국장로교의 데이터와 데이터 보고를 논의하고 개선했으며,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었다.

왜 지금인가?교회가 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 수전 바넷 박사

디렉터, 리서치 서비스  
행정 서비스 그룹  
미국장로교

## 개요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는 110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으며 2019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되었다. 우리는 주소지를 확보한 모든 목회자에게 우편엽서를 보내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도록 부탁드렸다. 이 설문조사는 또 연금국의 Call to Health 도전 프로그램의 하나였다. 연금국의 협력 덕분에 응답자의 절반이 확보되었다.

교단의 19,243명 (n=4,495)의 목회자 중 23%가 설문에 응답했다.

본 보고서는 목회자의 참살이 (웰빙) 상태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제공한다. 이는 목사 및 특별 사역 목회자와 은퇴목회자에 대한 참살이 상태를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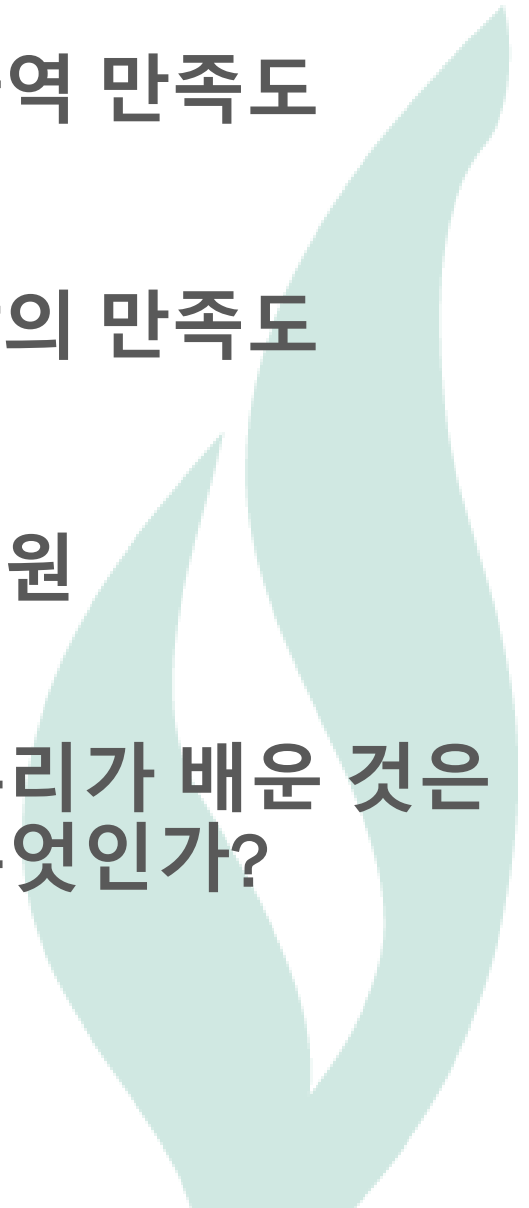
사역 만족도, 삶의 만족도, 지원 등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06** 사역 만족도

**16** 삶의 만족도

**28** 지원

**43**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 정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안수받고 여러 분야에서 사역 활동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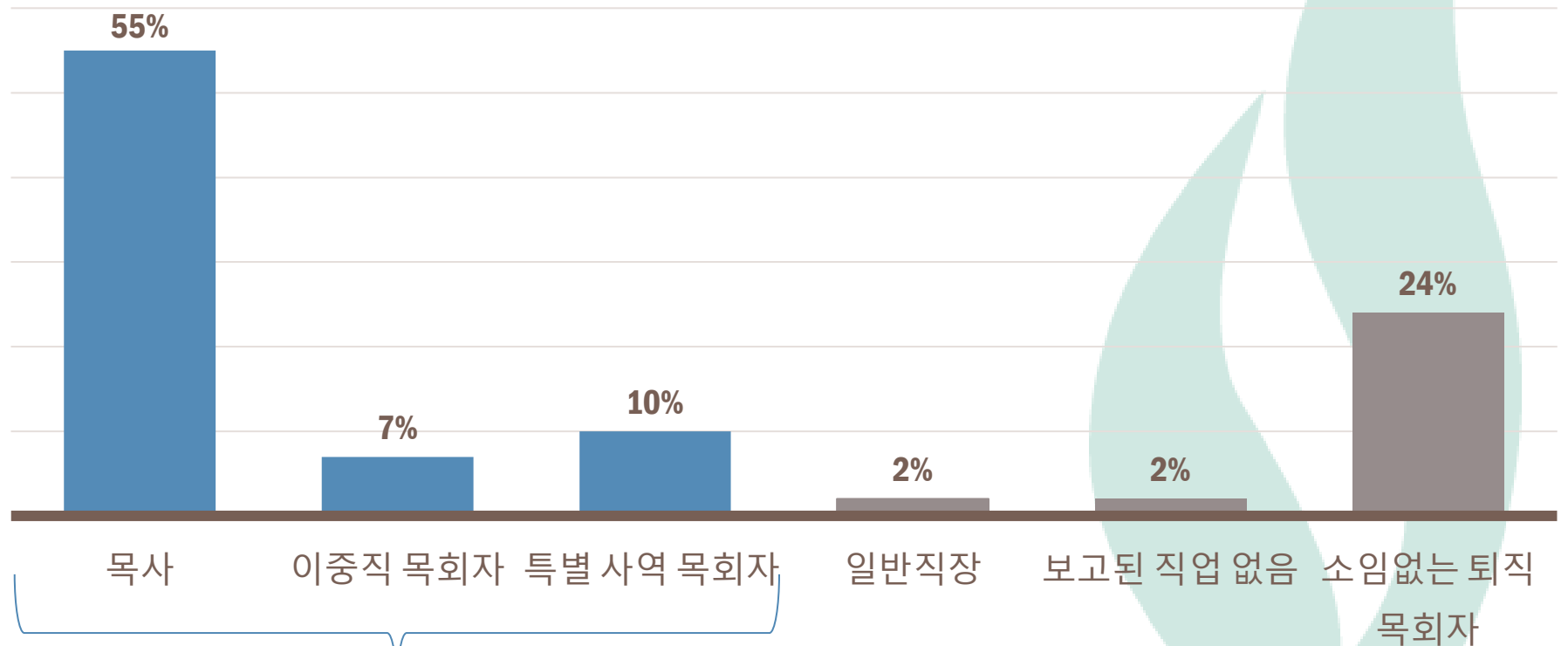
이 직위는 목사를 비롯하여 중간공의회 지도직, 전국적 기구의 지도직, 교도소, 군대, 병원의 목사직, 교직원/교육자, 혹은 공익종교단체의 직원 등 여러 형태로 전문화된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를 일컫는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이러한 분류체계를 목회자간 참살이의 편차를 조사하는데 이용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다음의 소임과 고용상태별 결과를 조사한다.

- **목사** - 위임목사, 공동목사, 부목사, 임시 목사, 설교 목사, 개척 목사
- **특별 사역 목회자** - 교도소, 군대, 병원의 목사직이나 목회 상담직 등 회중을 이끄는 형태 외 사역을 위해 안수받은 경우
- **이중직 목회자** - 일반 직업을 가지고 소임을 수행하는 목회자
- **은퇴 목회자** - 소명의 현재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노회에 은퇴 목회자로 보고되는 목회자
- **일반 직업을 가진 목회자** - 목회 안수를 받았으나 현재 사역을 하지 않는 목회자

# 목회자의 여러 가지 역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목회직 수행을 위해 안수받는다.

이 도표는 각각의 역할 하나만 맡은 개인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목사이다. 그 다음 많은 경우는 현재 사역을 하지 않는 은퇴 목회자이다. 응답자의 30%는 명예 은퇴했고, 응답자의 24%는 전적으로 은퇴했다(즉, 소임이 없거나 일하지 않음). 모든 소임과 직종에서 응답자의 비율은 이들 은퇴자들을 포함한다.



72%의 응답자는 목회 활동 중이다.

N=4,495

# 사역 만족도

이 항목은 목회자\*의 사역 만족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의 직위, 평생 교육 사항, 타 목회자와의 관계, 평신도 지도자들과의 관계, 월 급여, 영적 지도자로서의 전반적인 일에 대해 점검한다.

또 목회자의 일이 그들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있다. 고갈되었나? 성취감을 느끼나? 냉소적인가? 인정받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사역과 관련된 목회자들의 관심사에 대해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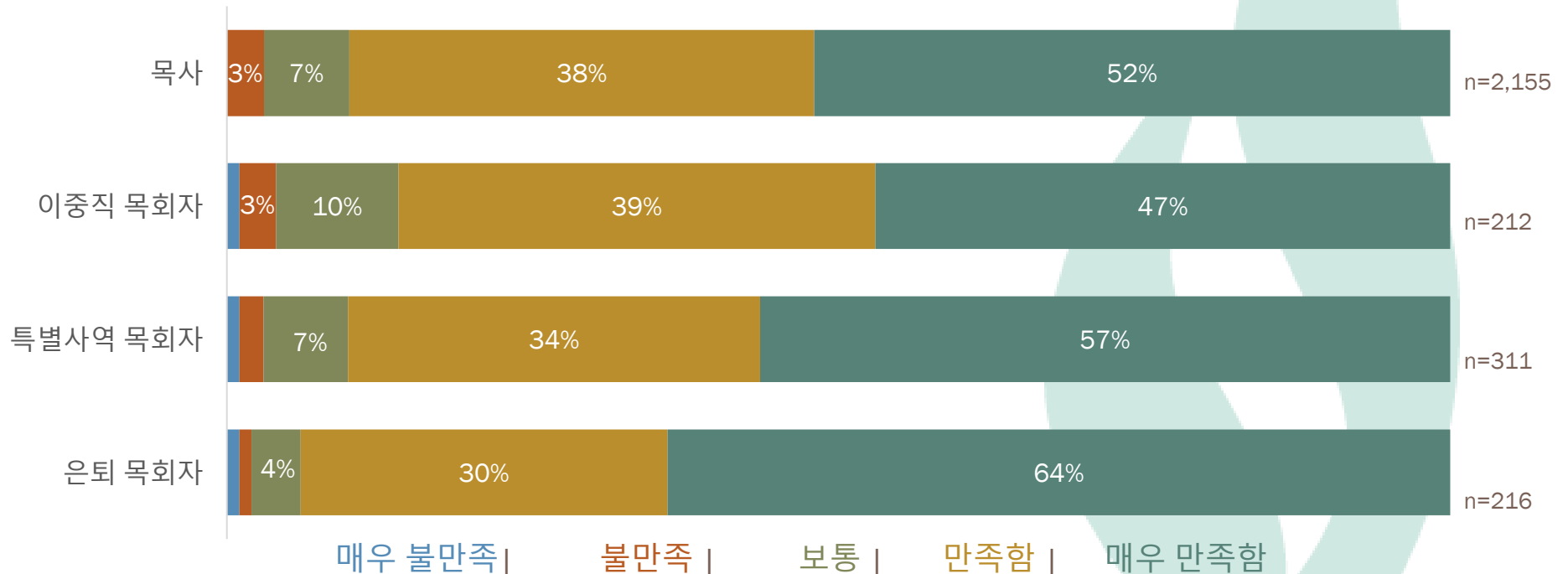
\*이 항목에서, 달리 언급이 없으면, "목회자"는 구체적으로 목사, 이종직 목회자, 특별 목회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3,177 명의 설문 응답자(71%)를 의미한다.



# 목회자의 88%는 전반적으로 영적 지도자로서의 일에 만족하고 있다

은퇴했으나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들의 사역에 만족하고 있다. 오직 4%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은퇴 목회자들은 가장 큰 만족도를 보였다. 은퇴한 목회자는 사역을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반드시 사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한편,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중직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일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전업으로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이들의 만족도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은퇴하지 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특별 사역을 하는 이가 목사보다 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역의 만족감을 보였다는 점이다.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 이하의 숫자는 기록은 되어 있으나 도표엔 나타나지 않음.

## 사역 만족도

# 목회자들은 사역에 만족하고 있으나, 일부는 평생 교육의 기회가 더 있기를 바란다

은퇴하지 않은 목회자 중에서 특별 사역 목회자가 전반적으로 가장 큰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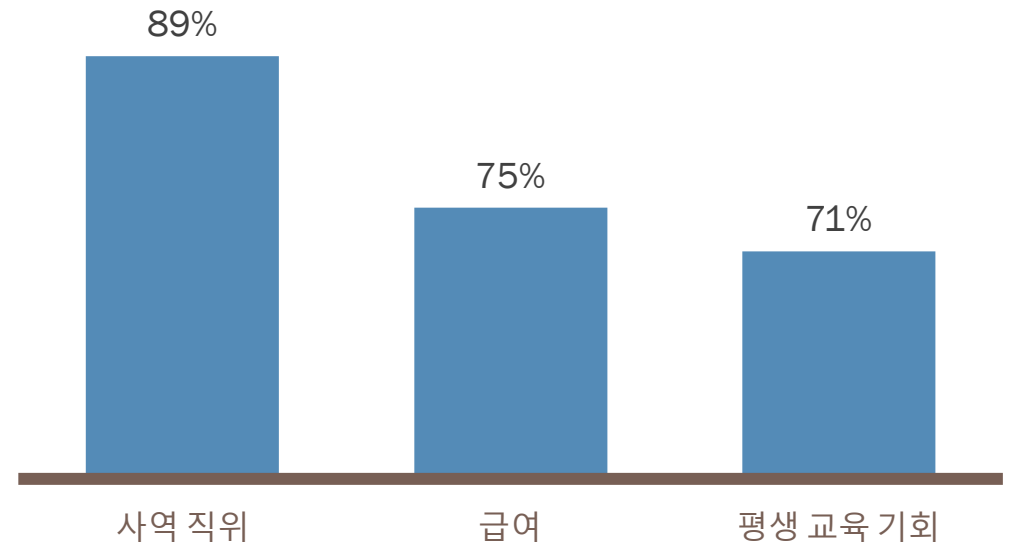
목회자들은 사역에 있어 다음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자신의:

- 영적 지도자로서의 일
- 현재의 사역 직위
- 급여 및 혜택
- 평생 교육의 기회: 목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파트 타임 또는 단기 수업 및 훈련
- 타 목회자들과의 관계
- 회중 내에서의 평신도 지도자들과의 관계

목회자들은 자신의 사역 직위에 대해 가장 만족했고, 평생 교육 기회에 대해선 가장 불만족스러워했다. 관계의 만족도에 대한 마지막 두 질문은 이 보고서의 지원 항목에서 다룰 것이다.

각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다음의 장들을 살펴보면 된다.

다음의 각 측면에서 '매우 만족함'이라고 대답한 목회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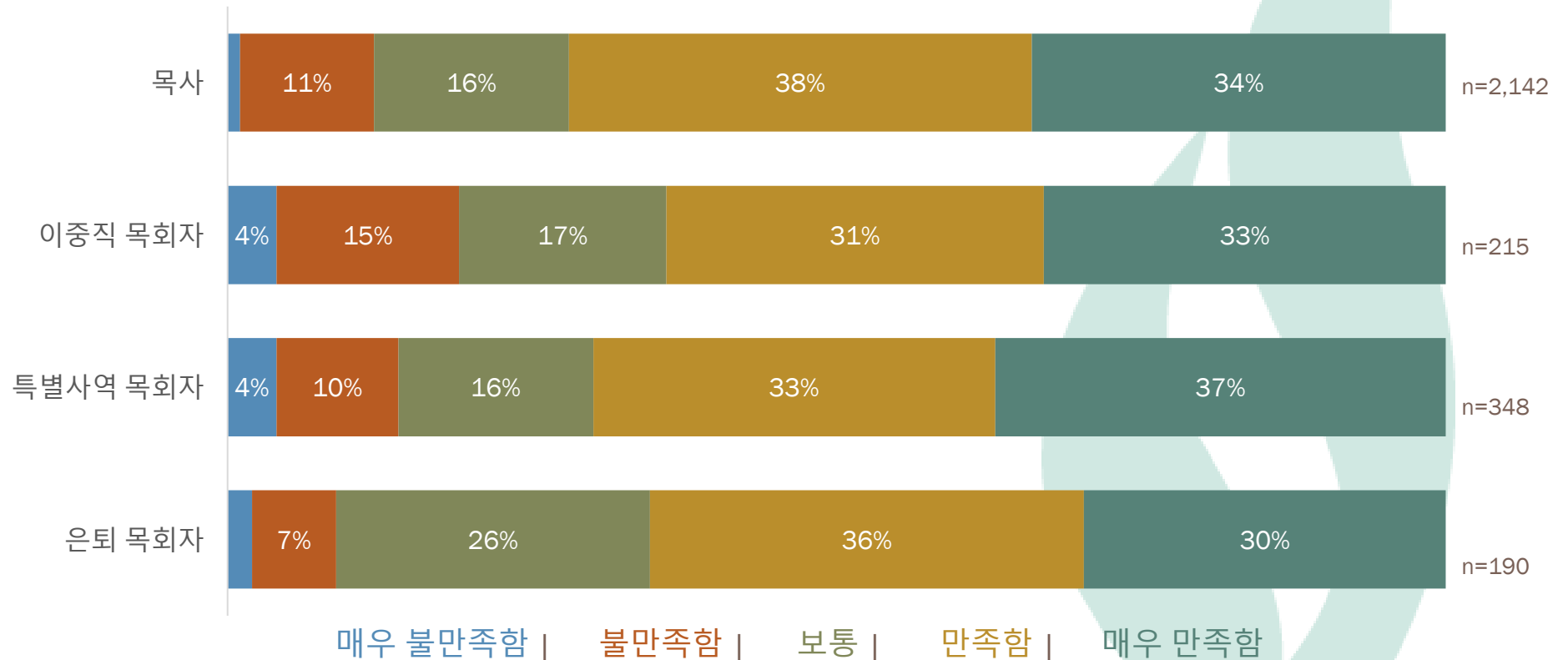




# 71%의 목회자는 그들의 평생 교육 기회에 대해 만족한다

특별 사역 목회자가 가장 만족해 한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그들의 평생 교육의 기회, 즉 목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파트 타임 또는 단기 수업 및 훈련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만, 13%라는 상당수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각 사명마다 차이가 있다. 특별 사역 목회자가 평생 교육 기회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으며, 반면 이종직 목회자가 가장 만족하지 못했다. 은퇴 목회자는 이 항목에 대해서 특별한 선호도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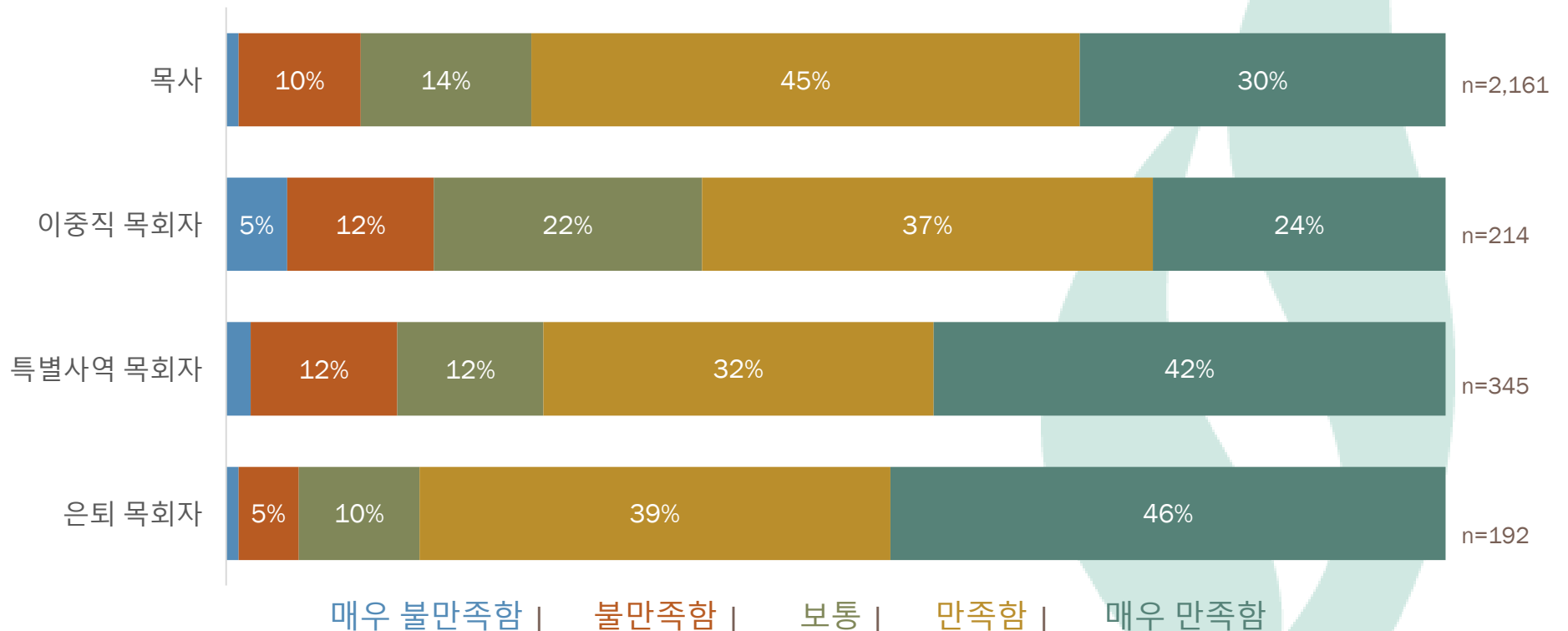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 이하의 숫자는 기록은 되어 있으나 도표엔 나타나지 않음.

# 75%의 목회자가 급여와 혜택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이중직 목회자가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목회자는 급여와 혜택에 만족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12%에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각 사명마다 차이가 있다. 은퇴했으나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들의 급여와 혜택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한편,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중직 목회자가 봉급과 혜택에 대해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들이 이중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즉 그들의 목회 사역에서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와 혜택에서도, 은퇴하지 않은 목회자 중에서 특별 사역 목회자가 가장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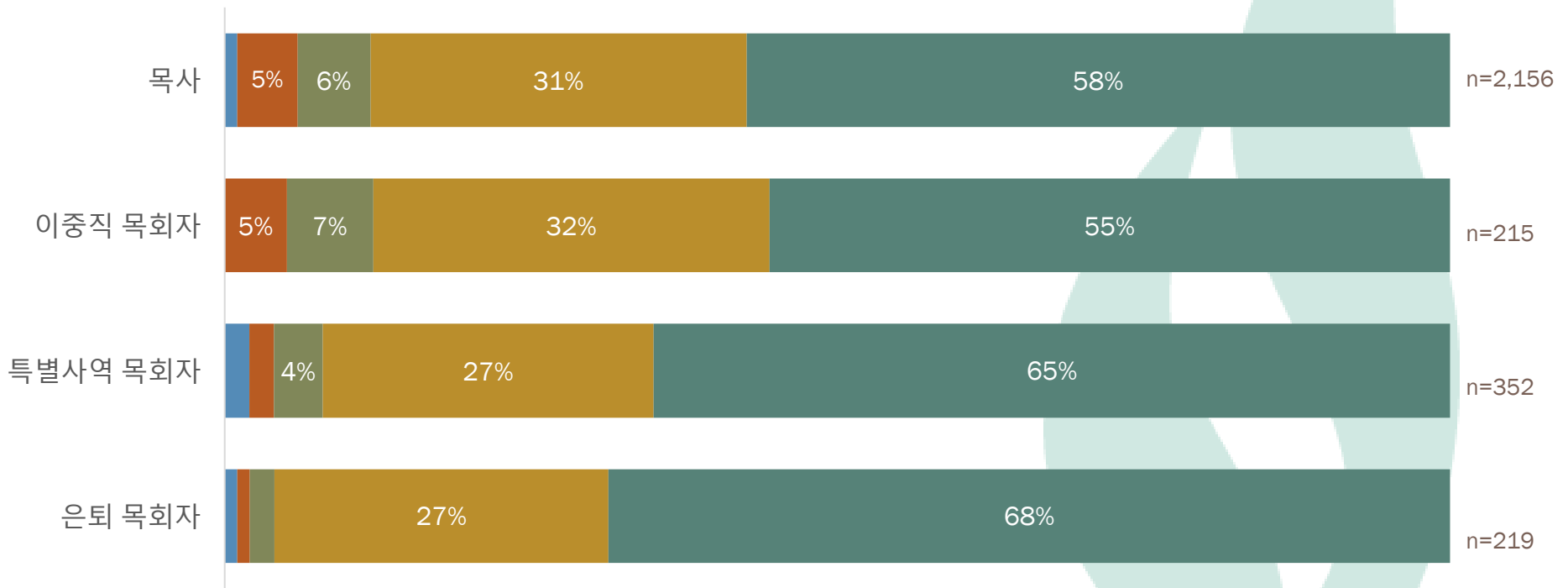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 이하의 숫자는 기록은 되어 있으나 도표엔 나타나지 않음.

# 89%의 목회자는 그들의 현재 사역 직위에 만족하고 있다

은퇴했으나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들의 현재 직위에 만족하고 있으며, 6%만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은퇴했으나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역 직위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고 있다. 반면에 이중직 목회자는 그들의 사역 직위에 대해 가장 만족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특별 사역 목회자가 자신의 사역 직위에 대해 목사들보다 더 만족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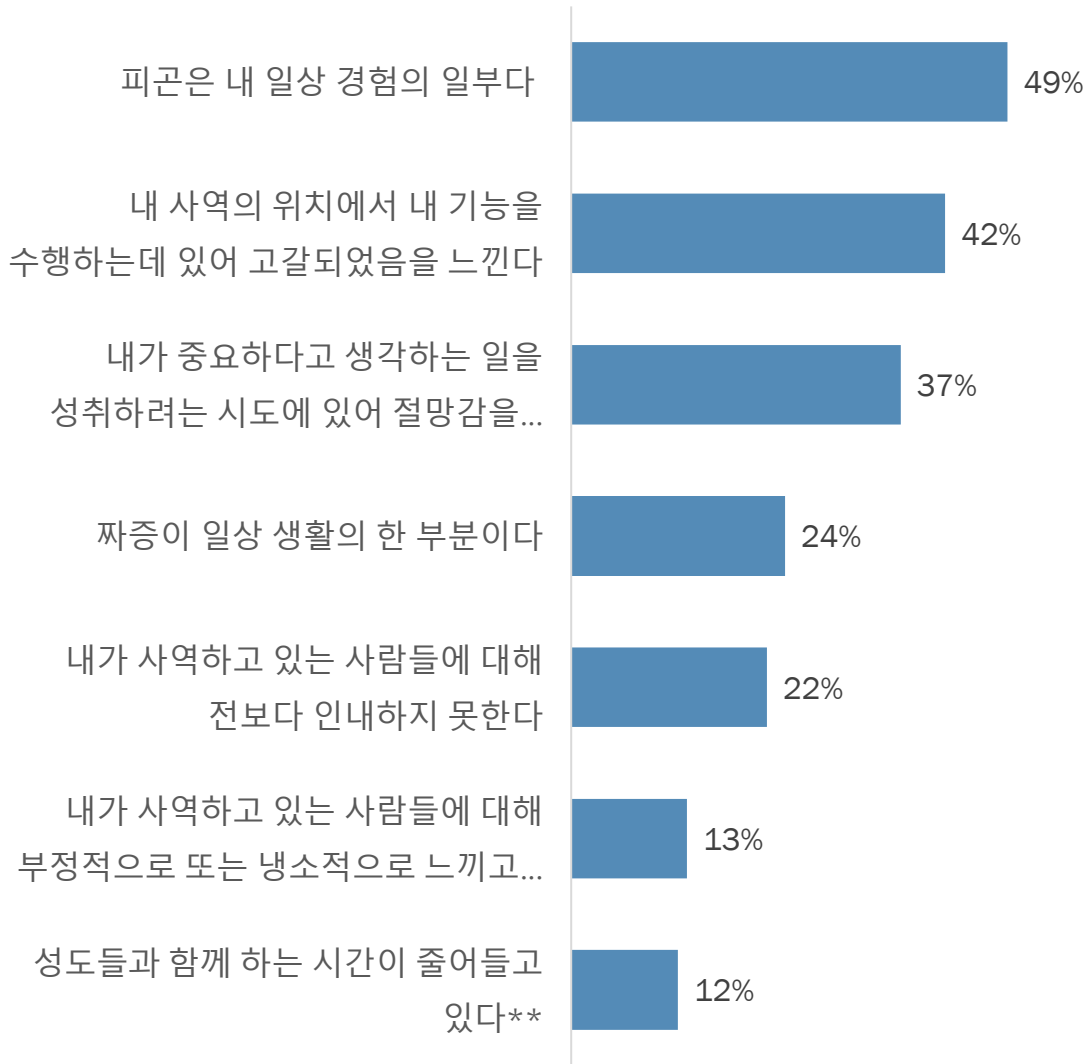


매우 불만족함 | 불만족함 | 보통 | 만족함 | 매우 만족함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 이하의 숫자는 기록은 되어 있으나 도표엔 나타나지 않음.

# 목회자들은 지쳐 있다

거의 절반의 목회자들(49%)이 매일 피곤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목회자들은 그들의 사역 경험에 관한 부정적인 문장에 대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를 표시하도록 요청받았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부정적인 문장은 "피곤은 내 일상의 일부다"였다. 사람들이 가장 동의하지 않은 것은 "성도들과의 시간을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였다. 우연의 일치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사실 **목사들이 피곤하다고 더 느낄수록, 그들은 성도들과 시간을 덜 쓰게 된다.**

이 결과는 사명에 따라 달랐다:

- 목사들보다 특별 사역 목회자가 그들의 사역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 목사들보다 특별 사역 목회자가 그들의 사역을 통해 삶의 진정한 목표와 의미를 더 발견한다고 했다.
- 이종직 목회자는 피곤이 그들의 일상의 일부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 이종직 목회자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성도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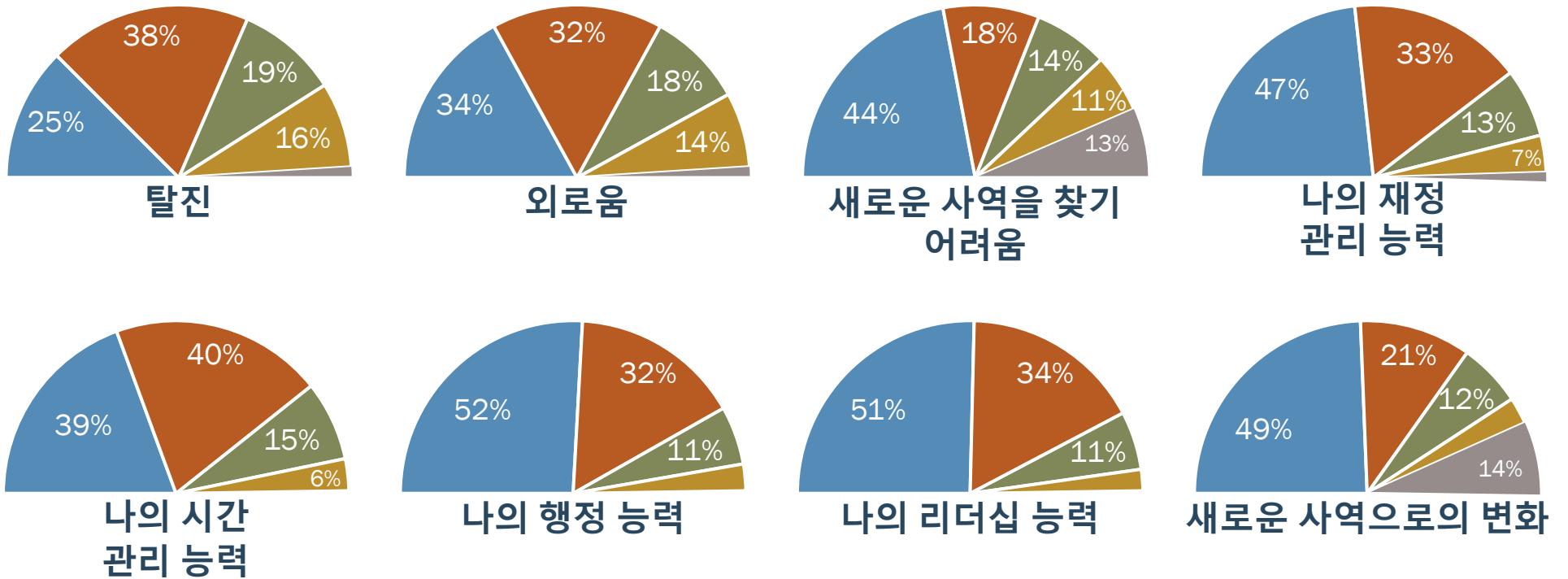
\* 이 장의 분석들은 은퇴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 목사들에게만 질문했다

# 35%의 목회자들이 탈진(burnout)을 우려했다

대체로 목회자들은 우리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 그리 큰 걱정을 하진 않았다. 질문한 것 중에서는 외로움과 탈진에 대해 가장 걱정했다.

이 결과는 각 사명마다 조금씩 달랐다: 이종직 목회자들이 목사들 또는 특별 사역 목회자들보다 탈진에 대해 더 걱정했다. 특별 사역 목회자들은 리더십 능력, 행정 능력, 재정 관리 능력 등에 대해 그리 염려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사역이 이와 같은 기술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목회자들에 대한 도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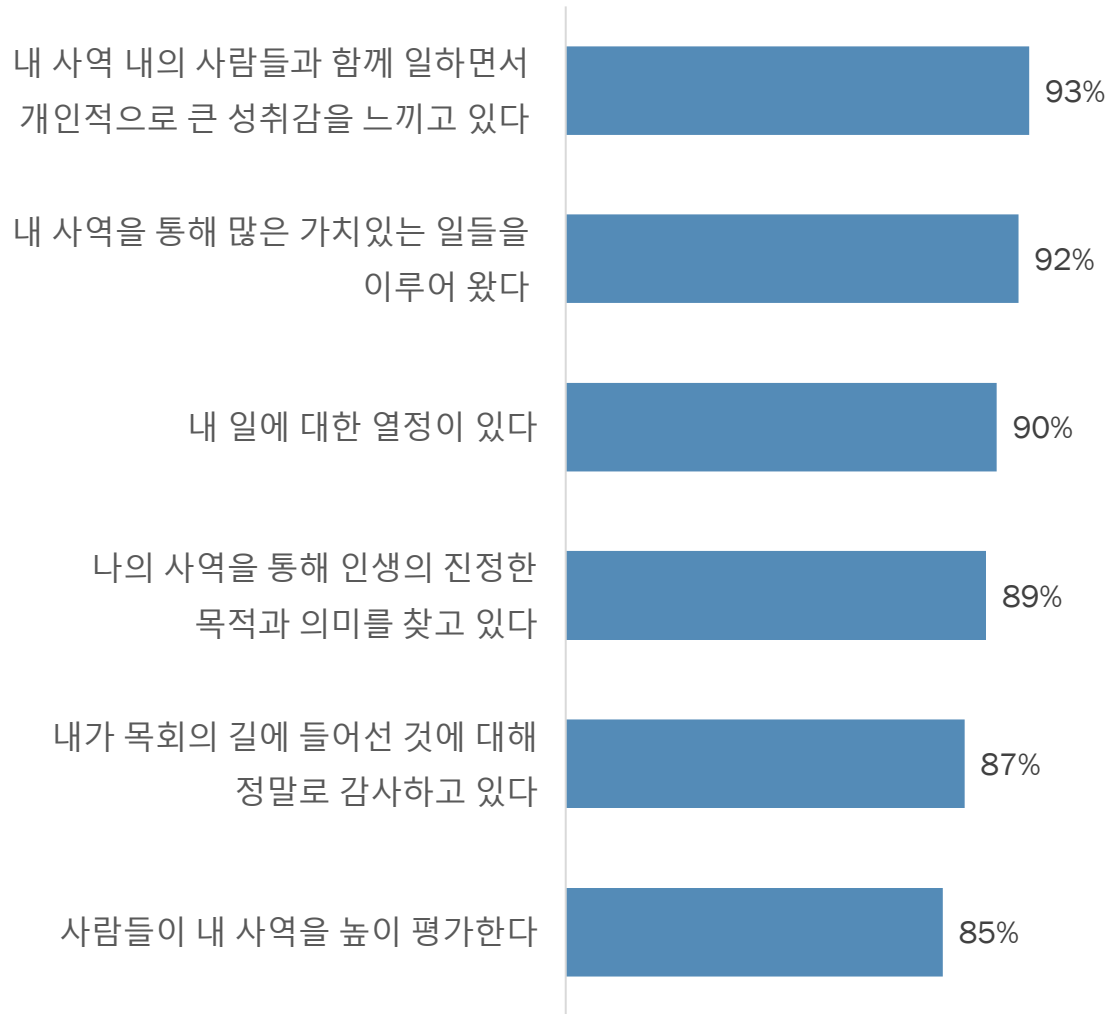


전혀 걱정하지 않음 | 약간 걱정됨 | 걱정됨 | 매우 걱정됨 | 해당 사항 없음

5% 이하의 숫자는 기록은 되어 있으나 도표엔 나타나지 않음.

# 목회자들은 사역에 보람을 느낀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들의 사역에서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목회자들은 지쳐있다. 3분의 1 이상이 탈진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명이 보람있다고 느낀다.

목회자들은 그들의 사역 경험에 관한 긍정적인 문장에 대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를 표시하도록 요청받았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긍정적인 문장은 "내 사역 내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였다. 가장 적은 사람이 동의한 문장은 "사람들이 내 사역을 높이 평가한다"였다. **예상할 수 있듯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목회자의 만족도는 증가한다.**

이는 사역별로 다르지 않았다.

\* 이 장의 분석들은 은퇴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 목회자의 사역 만족도

목회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사명에 만족하고 있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즉 목회자의 피로, 탈진, 외로움이 미국장로교 내에 널리 퍼져있다. 이런 우려들은 이종직 목회자에게 더 심했다. 특별 사역 목회자들은 목사들보다 더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고, 탈진에 대해선 더 적은 사람들이 언급했다.

일부 우려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거의 절반의 목회자들(49%)이 그들의 일상 경험의 일부로 피곤을 언급했다.
- 38%의 이종직 목회자들이 급여와 혜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 35%의 목회자들이 탈진을 우려했다.
- 32%의 목회자들이 외로움을 호소했다.
- 29%의 목회자들은 그들의 평생 교육 기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 13%의 목회자들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으로 느끼고 있다.

# 삶의 만족도

이 항목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삶, 즉 주택, 영적 생활, 가정, 건강, 가족 관계,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피고 있다. 또 개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봤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삶, 정신 건강, 육체 건강, 영적 건강과 관련된 그들의 염려에 대해 확인했다.

\*이 항목에서, 달리 언급이 없으면, "목회자"는 구체적으로 목사, 이종직 목회자, 특별 목회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3,177 명의 설문 응답자(71%)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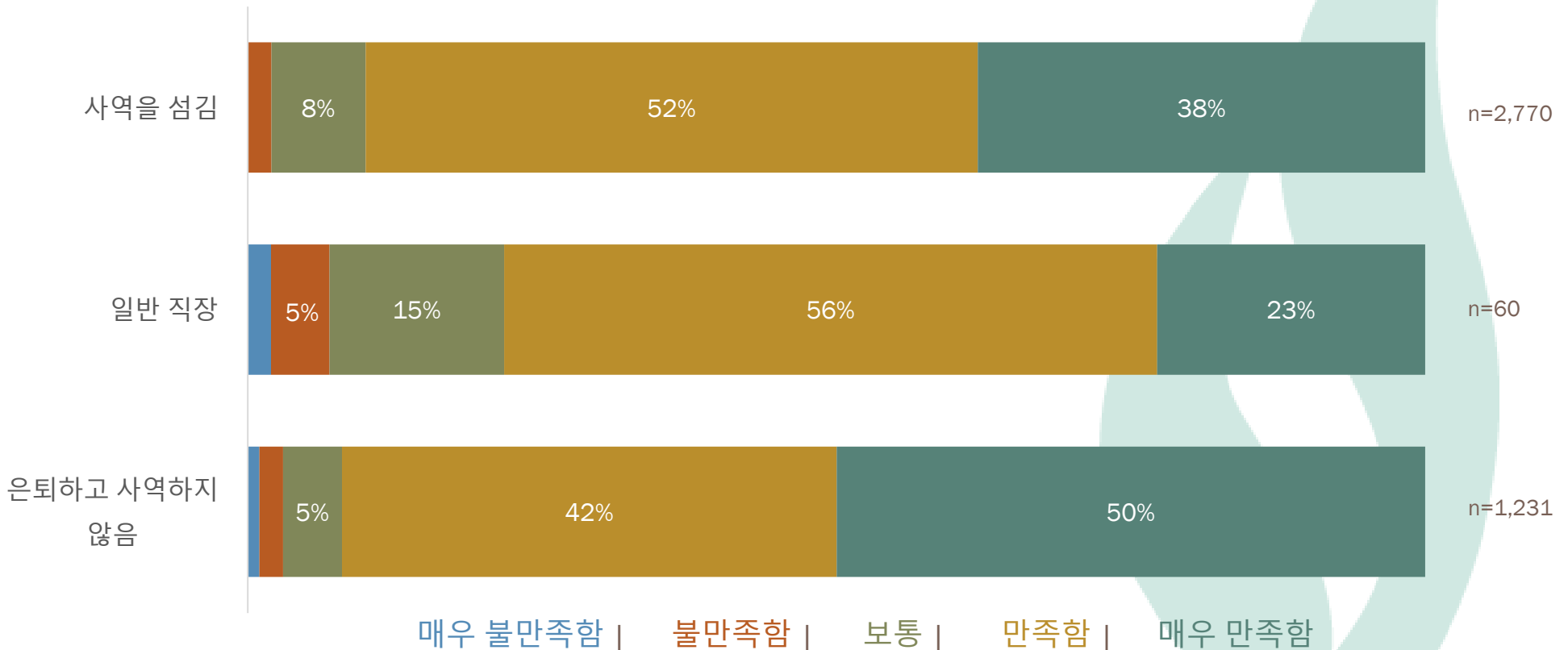




# 목회자의 90%는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일반 직업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의 만족도가 제일 낮았다.

10명 중 9명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나, 41%만이 '아주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은퇴 목회자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각 사역 (목사, 이종직 목회자, 특별 사역 목회자)마다 크게 다르진 않았으나,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와 일반 직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은퇴하지 않았지만, 사역을 하지 않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상당히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 이하의 숫자는 기록은 되어 있으나 도표엔 나타나지 않음.

# 삶의 만족도는 건강과 영적 생활 면에서 가장 낮았다

목회자의 41%가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매우 만족하다'고 언급했으나, 삶의 특정 측면에서의 만족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목회자들은 사역에 있어 다음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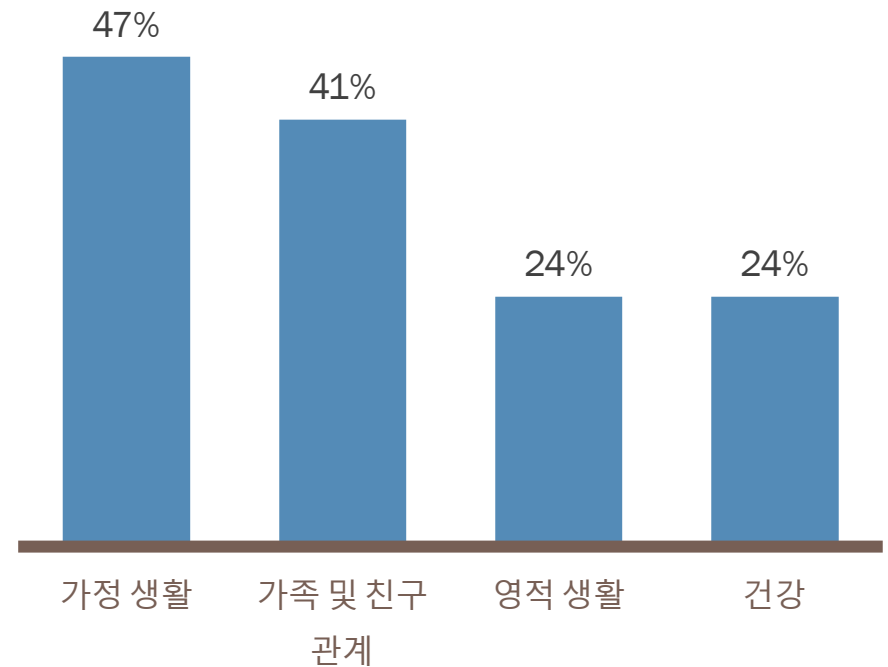
- 가정 생활
- 가족 및 친구 관계
- 영적 생활
- 건강

목회자들은 가정 생활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으며, 그들의 영적 생활 및 건강에 대해 가장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 목회자들 중에서 자신의 영적 생활과 건강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세 집단을 비교해서 좀더 깊이 연구해 봤다:

1. 사역하고 있는 집단 (목사, 이종직 목회자, 특별 사역 목회자)
2.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사역을 하지 않는 집단
3. 은퇴 목회자 집단 (사역 여부에 관련없음)

다음의 각 측면에서 '매우 만족함'이라고 대답한 목회자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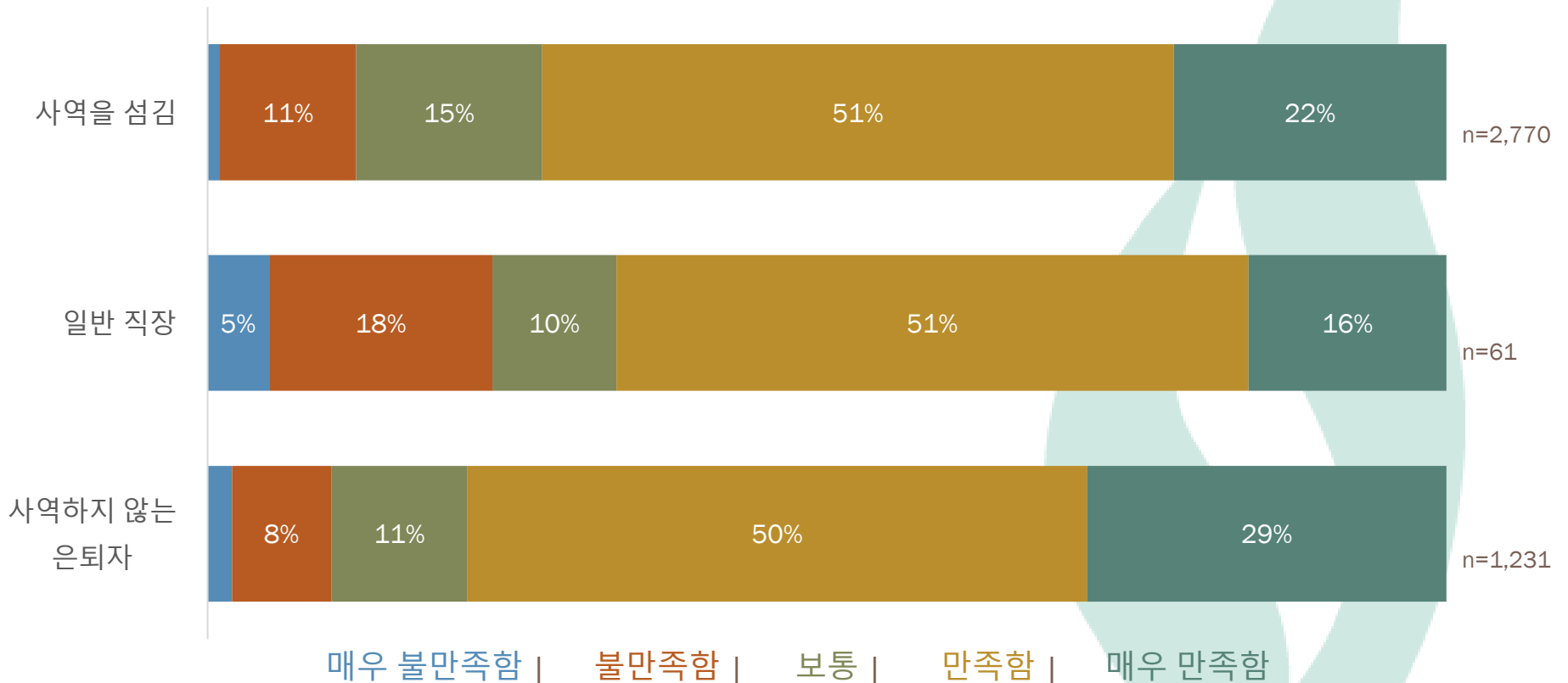


# 75%의 목회자가 건강 면에서 만족하고 있다

은퇴 목회자들이 가장 큰 만족도를 보였다.

은퇴 목회자들이 그들의 건강에 대해 가장 크게 만족해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건강에 대한 우리의 만족도 기준이 나이가 들면서 낮아진 것일 수 있다. 참고로 은퇴한 목회자들의 평균 연령은 75세인 반면, 은퇴하지 않은 목회자의 연령은 54세다.

또 도표엔 나타나있지 않으나, 이종직 목회자가 목사나 특별 사역 목회자보다도 그들의 건강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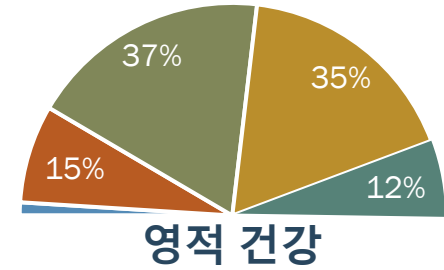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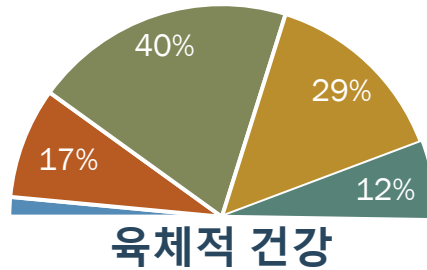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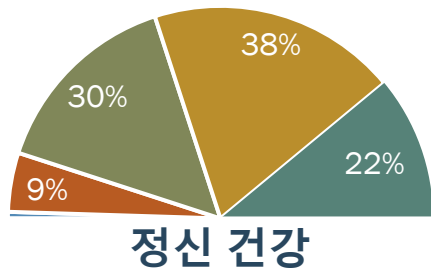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 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 이하의 숫자는 기록은 되어 있으나 도표엔 나타나지 않음.

## 삶의 만족도

# 목회자의 28%만이 정신적, 육체적, 영적 건강이 매우 좋거나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육체적 건강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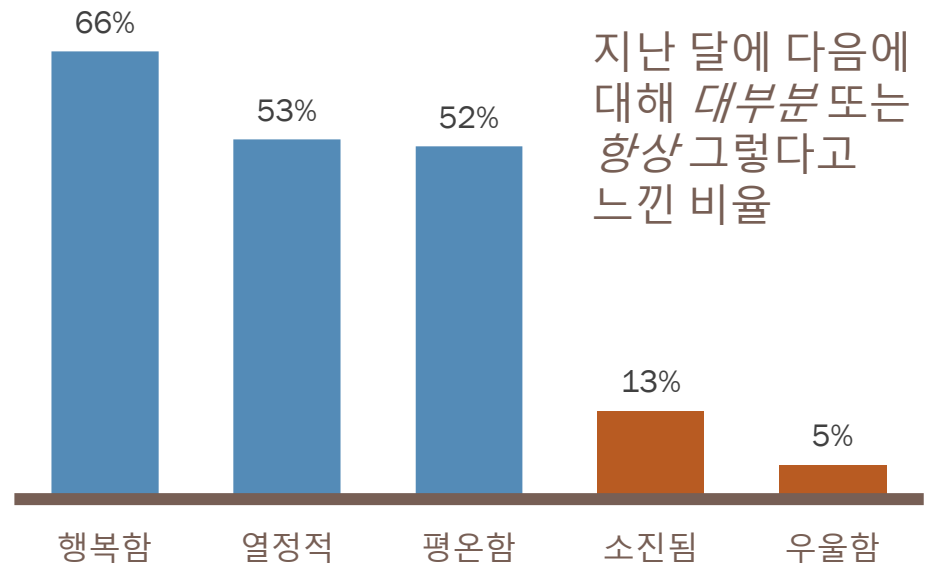
나쁨 | 보통 | 좋음 | 매우 좋음 | 훌륭함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 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 이하의 숫자는 기록은 되어 있으나 도표엔 나타나지 않음.

전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건강에 대해 "좋다"고 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건강에 대해 평균을 내보면 전반적인 건강 지수가 3.5/5이기 때문이다. 이는 확실히 "좋음"의 범주에 들어간다 (1=나쁨, 2=보통, 3=좋음, 4=매우 좋음, 5=뛰어남).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정신 건강을 "매우 좋음" 또는 "뛰어남"으로 표시했으나, 그들의 육체적 건강에 대해선 거의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달에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다. 2/3의 목회자가 행복하다고 했고 약 절반은 대부분 또는 항상 열정이 넘치고 평안을 느낀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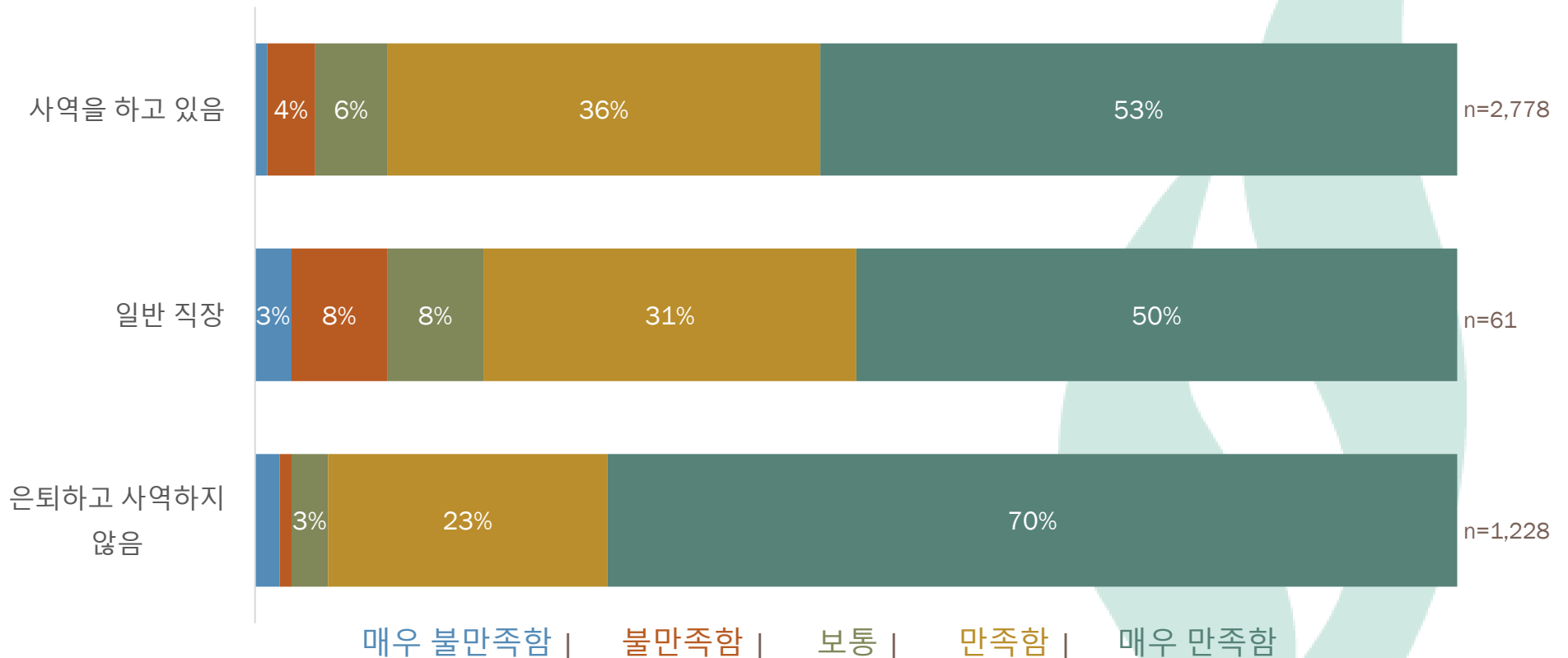
\* 이 장의 분석은 은퇴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한다.



# 79%의 목회자는 그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은퇴 목회자들이 가장 큰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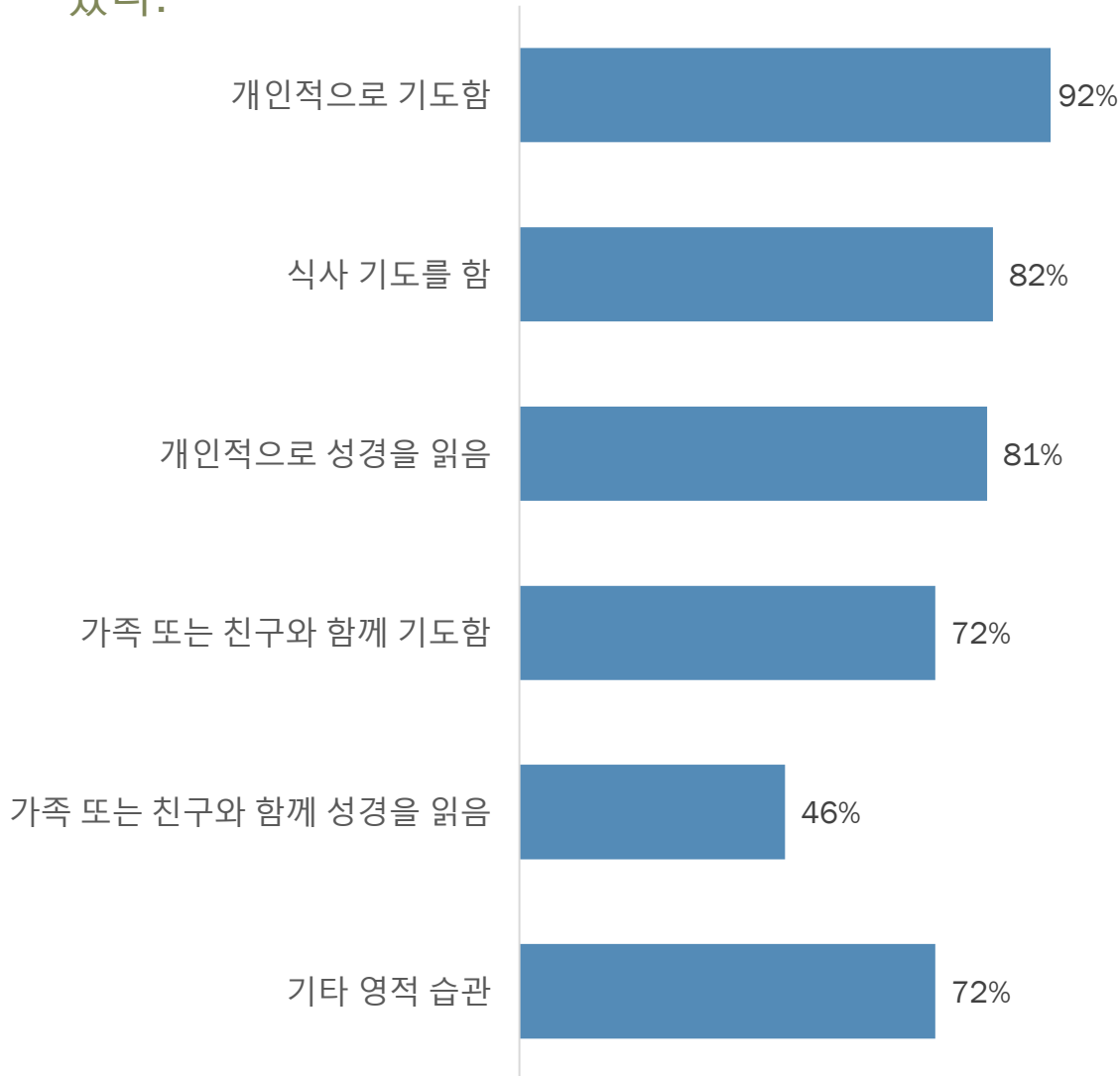
목회자(목사, 이중직 목회자, 특별 사역 목회자) 사이에서 만족도가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일반 직업을 갖고 있는 목회자는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보다 그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그리 놀랄 만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인 것이 고무적이다.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과 비슷한 만족도를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상당히 차이가 나진 않는다. 삶에 대한 만족도의 다른 측정 기준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퇴 목회자들이 그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가장 큰 만족도를 보였다.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 이하의 숫자는 기록은 되어 있으나 도표엔 나타나지 않음.

# 목회자들은 영적 습관을 실천한다

이 도표는 매주 또는 그 이상으로 각 습관을 행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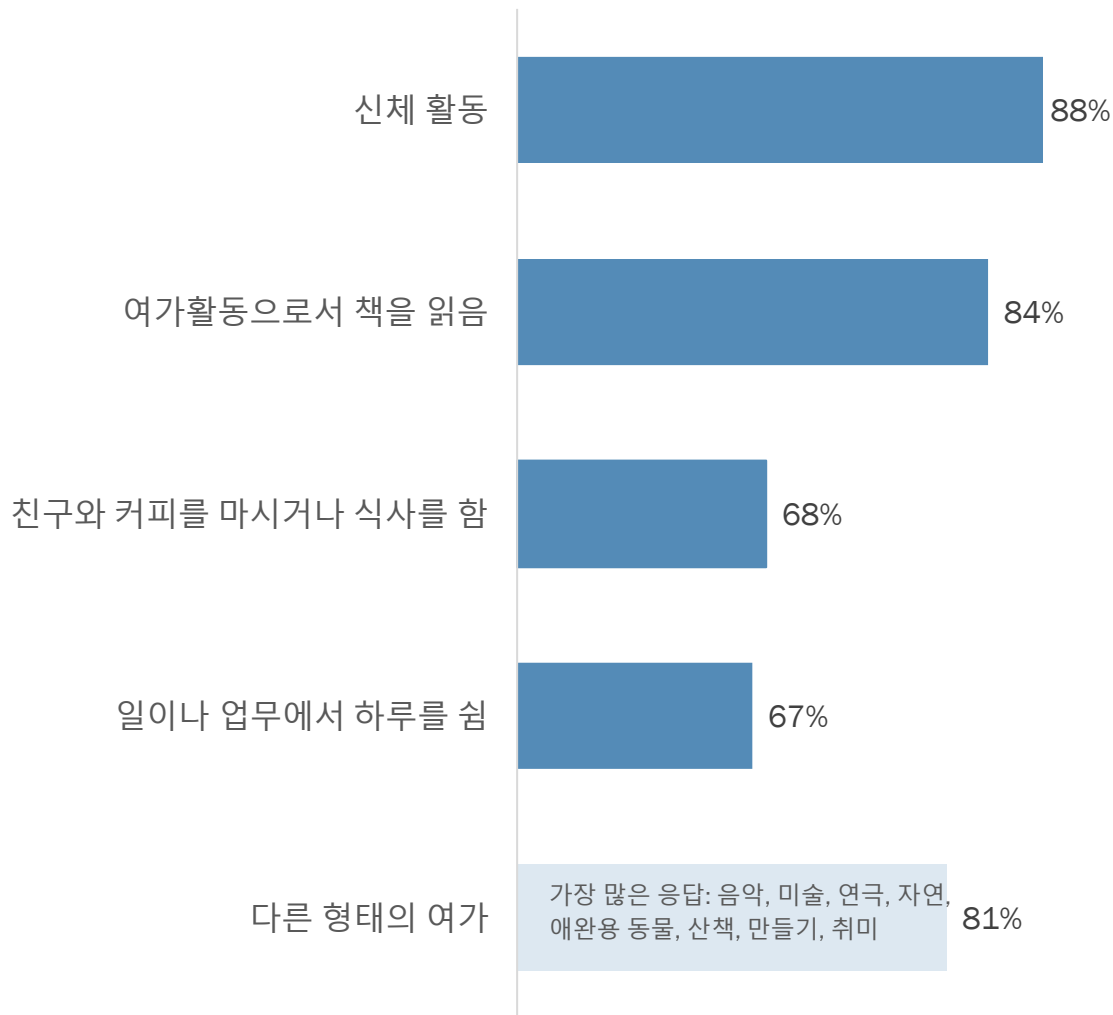
몇몇 영적 습관을 얼마나 자주 실천하는지를 목회자들에게 물었다. 목회자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가족 또는 친구와 기도하는 경우는 그보다 적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와 은퇴 목회자의 응답의 차이가 흥미롭다. 이 질문에 대해 일곱 가지로 대답할 수 있었다: (1) 전혀 하지 않음, (2) 한 달에 한 번 이하, (3) 한 달에 한 번, (4) 한 달에 예닐곱 번, (5) 매주, (6) 일주일에 예닐곱 번, (7) 매일 또는 그 이상. 이 자료가 **실제적인** 선형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합리적 여지가 있다. 현직 목회자와 은퇴한 목회자의 응답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현직 목회자가 영적 습관에 더 자주 실천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분석은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감추고 있었다.

**매일 또는 그 이상 영적 습관을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은퇴 목회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이와 같은 영적 습관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 은퇴 목회자의 비율이 또 가장 높았다.** 이것이 은퇴의 영향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차이인지 명확하지 않다.

# 목회자의 67%가 매주 하루를 쉰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매주 활동, 여가활동으로서의 독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응답: 음악, 미술, 연극, 자연, 애완동물, 산책, 만들기, 취미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다양한 형태의 여가 활동을 하느냐고 목회자들\*에게 질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 활동을 한다고 했다. 가장 적은 대답은 일이나 업무를 하루 쉰다는 대답이었다. 3분의 1의 목회자들은 매주 일이나 업무에서 하루를 쉬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일이나 업무를 하루 쉬는 목회자의 비율에서 사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사역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70%의 목사
- 66%의 특별 사역 목회자
- 60%의 이중직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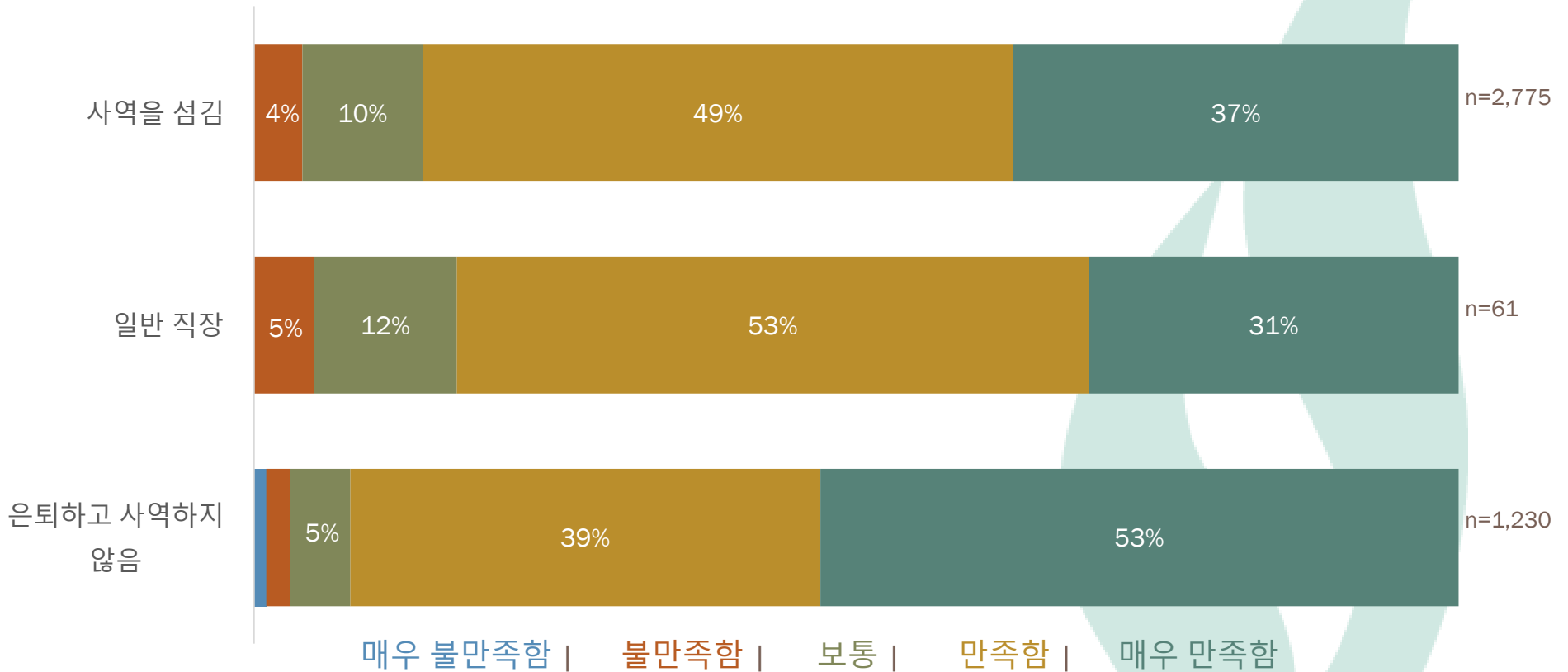
이중직 목회자에 있어 일이나 업무를 하루 쉰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은퇴 목회자는 이와 같은 모든 형태의 여가 활동을 가장 높은 비율로 하고 있다.

\* 이 장의 분석들은 은퇴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 목회자의 87%는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

은퇴 목회자들이 가장 큰 만족도를 보였다.

목회자(목사, 이종직 목회자, 특별 사역 목회자) 사이에서 만족도가 그리 크게 차이 나지 않았지만, 일반 직업을 갖고 있는 목회자는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보다 그들의 관계에 대해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의 다른 측정 기준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퇴 목회자들이 그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가장 큰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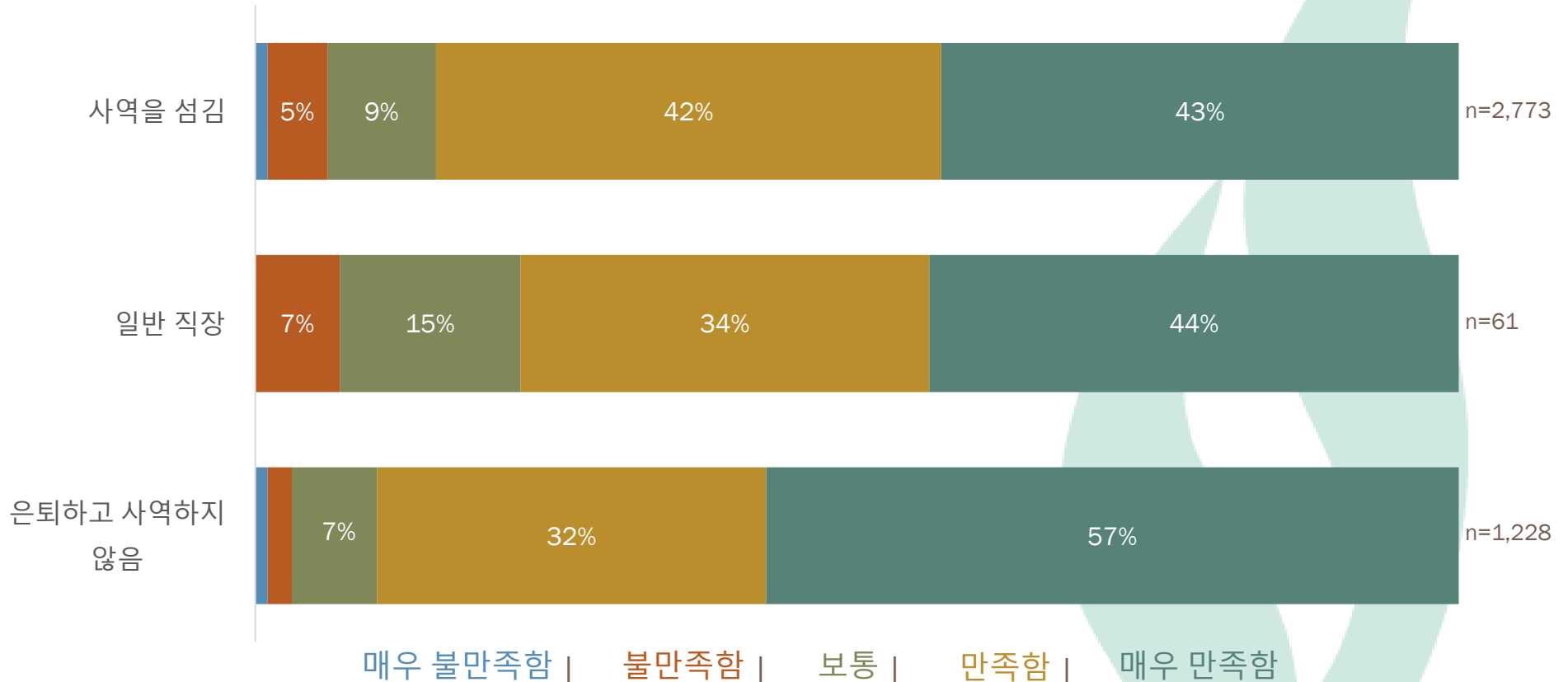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 이하의 숫자는 기록은 되어 있으나 도표엔 나타나지 않음.



# 87%의 목회자가 그들의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은퇴 목회자가 가장 큰 만족도를 보였다.

목회자(목사, 이중직 목회자, 특별 사역 목회자) 사이에서 만족도가 그리 크게 차이하지 않았지만, 일반 직업을 갖고 있는 목회자는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보다 그들의 가정 생활에 대해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목회자가 그들의 가정생활에 대해 가장 크게 만족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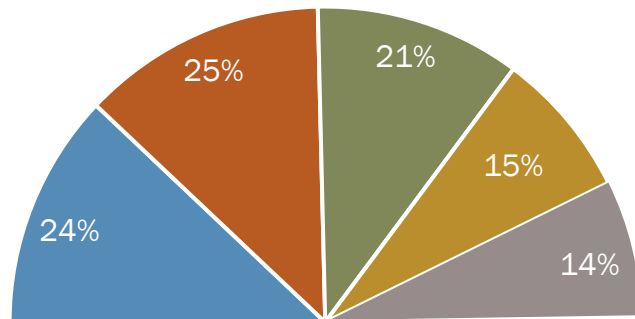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 이하의 숫자는 기록은 되어 있으나 도표엔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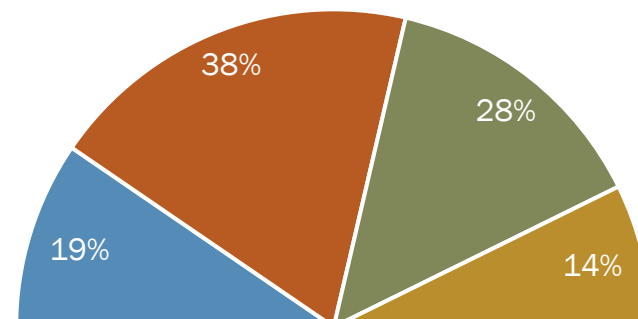
# 목회자의 29%는 나이드신 부모를 돌보는 것에 대해 신경쓰고 있다

약 15% 이하의 목회자만이 개인적인 삶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연로한 부모를 돌보고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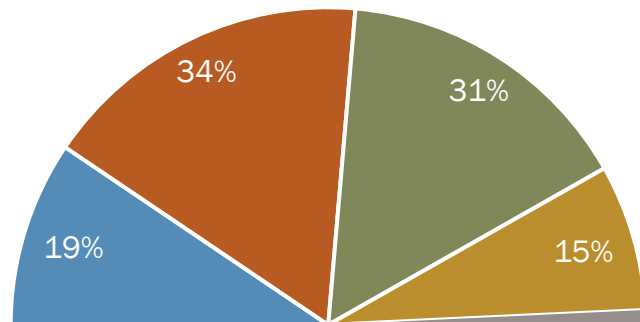
이는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은퇴하지 않은 목회자의 응답이다. 이 결과는 각 사명마다 다르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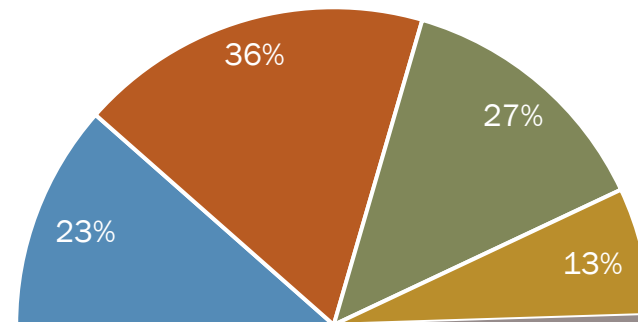
나이드신 부모를 돌봄



영적 쇄신의 필요성



가족과의 시간



관계를 위한 시간

전혀 걱정하지 않음 | 약간 걱정됨 | 걱정됨 | 매우 걱정됨 | 해당 사항 없음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 이하의 숫자는 기록은 되어 있으나 도표엔 나타나지 않음.

# 목회자의 삶의 만족도 결과 요약

목회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목회자 참살이 보고서의 이 항목은 여러 면에서 은퇴의 이로움과 사역을 하는 것의 이로움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모든 삶의 만족도 측정 기준에서 은퇴 목회자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사역하지 않으며 일반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목회자의 건강 및 영적 생활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목회자의 건강에 관한 주제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다룰 것이다. 목회자의 영적 건강과 관련해선, 42%의 목회자가 자신의 영적 쇠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10명 중 9명의 목회자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모든 목회자 중에서 은퇴하고 사역을 하지 않는 이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은퇴하지 않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관심사다:

- 목회자의 28%만이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건강을 *매우 좋다* 또는 *훌륭하다*고 했다.
- 목회자의 13%는 *거의 항상* 또는 *항상* 지쳐있다고 응답했다.
- 3분의 1의 목회자는 매주 일이나 업무에서 하루를 쉬지 못한다.
- 목회자의 29%는 나이드신 부모를 돌보는 것에 대해 신경쓰고 있다.

# 지원

이 항목은 목회자\*에 대한 지원을 다룬다. 특별히 우리는 목회자가 노회로부터 받고 있다고 느끼는 지원의 수준, 크리스찬 공동체 내의 지원 정도, 안식년/월 시행 여부 및 방법에 대해 확인했다.

\*이 항목에서, 달리 언급이 없으면, "목회자"는 구체적으로 목사, 이종직 목회자, 특별 목회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3,177 명의 설문 응답자(71%)를 의미한다.



# 목회자가 노회로부터 가장 많이 얻는 것은 소속감이다

은퇴하지 않은 목회자 중에서 특별 사역 목회자가 전반적으로 가장 큰 만족도를 보였다.

목회자들이 노회로부터 다음의 것들을 얼마나 자주 받거나 경험했는지를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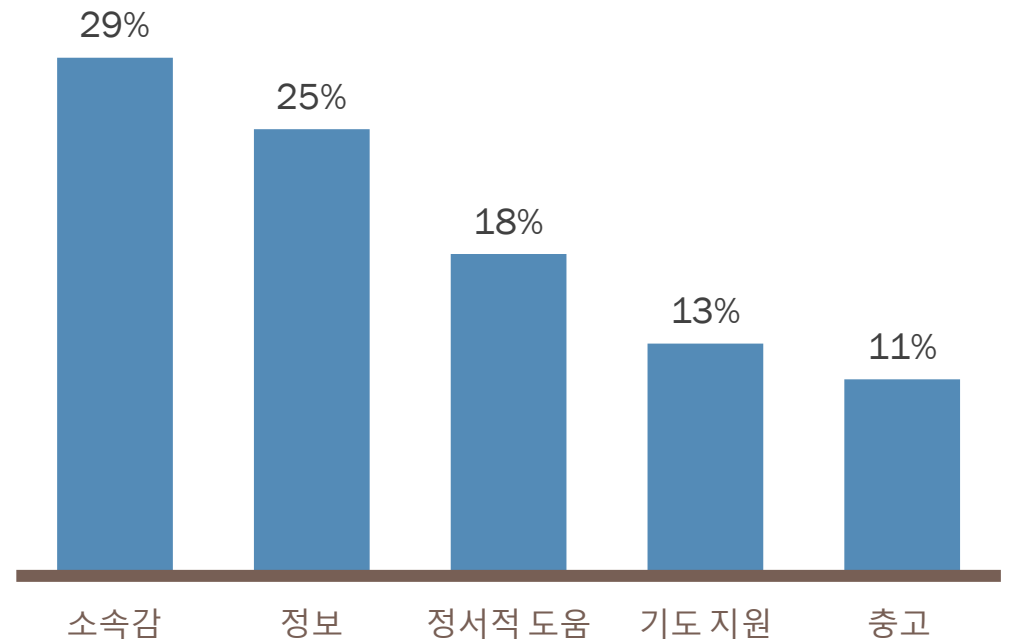
- 소속감
- 정보
- 정서적 도움
- 기도 지원
- 충고

목회자들은 대부분 소속감을 얻는다고 응답한 반면, 조언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목회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글로 쓰게 했다. 어떤 이들은 그 공간에 노회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많은 이들이 그들이 받은 긍정적 칭찬, 격려, 존중에 대해 글을 남겼다.

**"가족과 같다... 때로는 정말 좋다, 때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함께 하기엔 너무 좋다."**

각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다음의 장들을 살펴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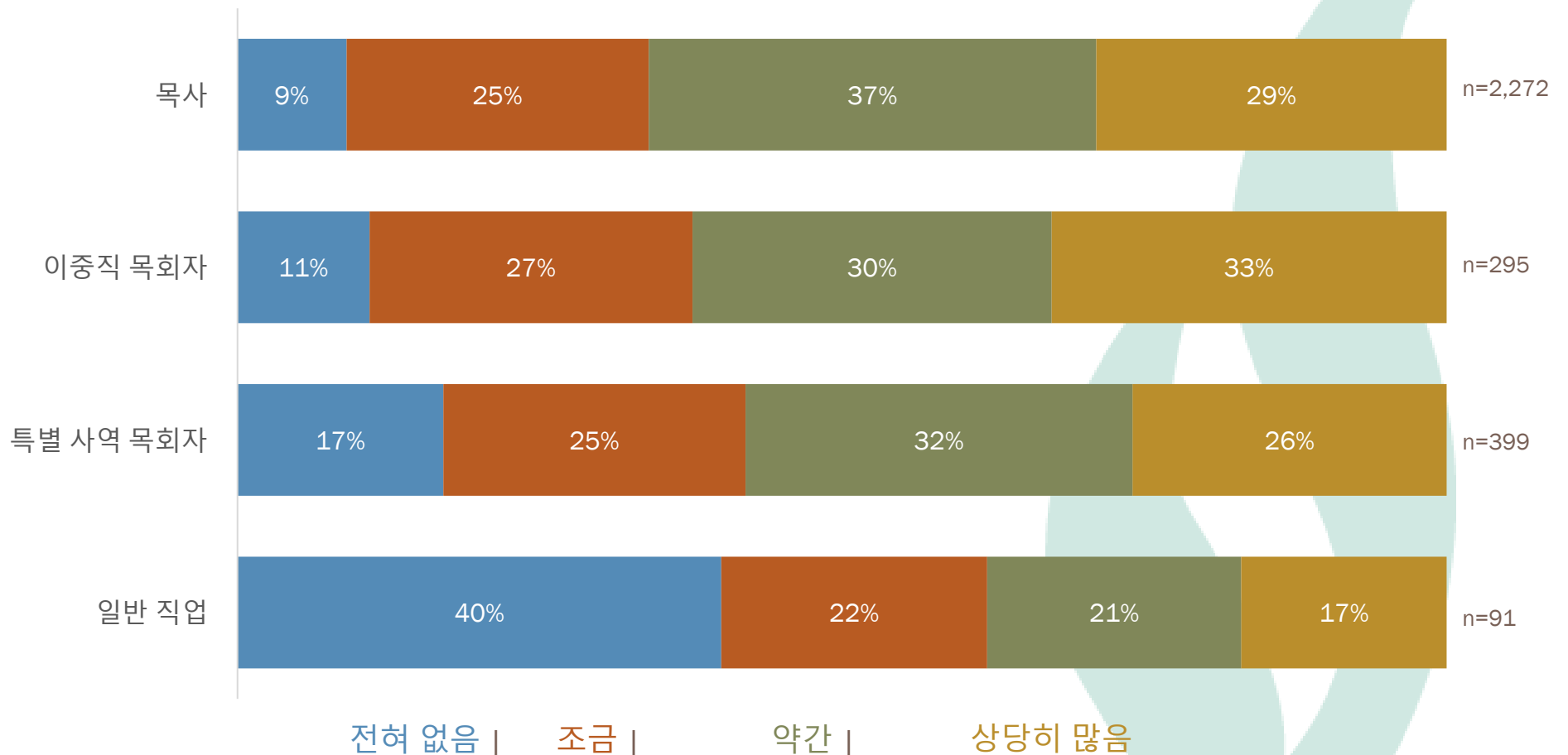
노회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의 전반적인 비율:



# 사역 중인 목회자가 소속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

일반 직장을 갖고 있는 이들은 노회에 대한 가장 낮은 소속감을 보였다.

노회에서 얼마나 소속감을 경험하느냐고 목회자들에게 질문했다. 목사, 이종직 목회자, 특별 사역 목회자, 일반 직업을 지닌 목사 사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은퇴했으나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결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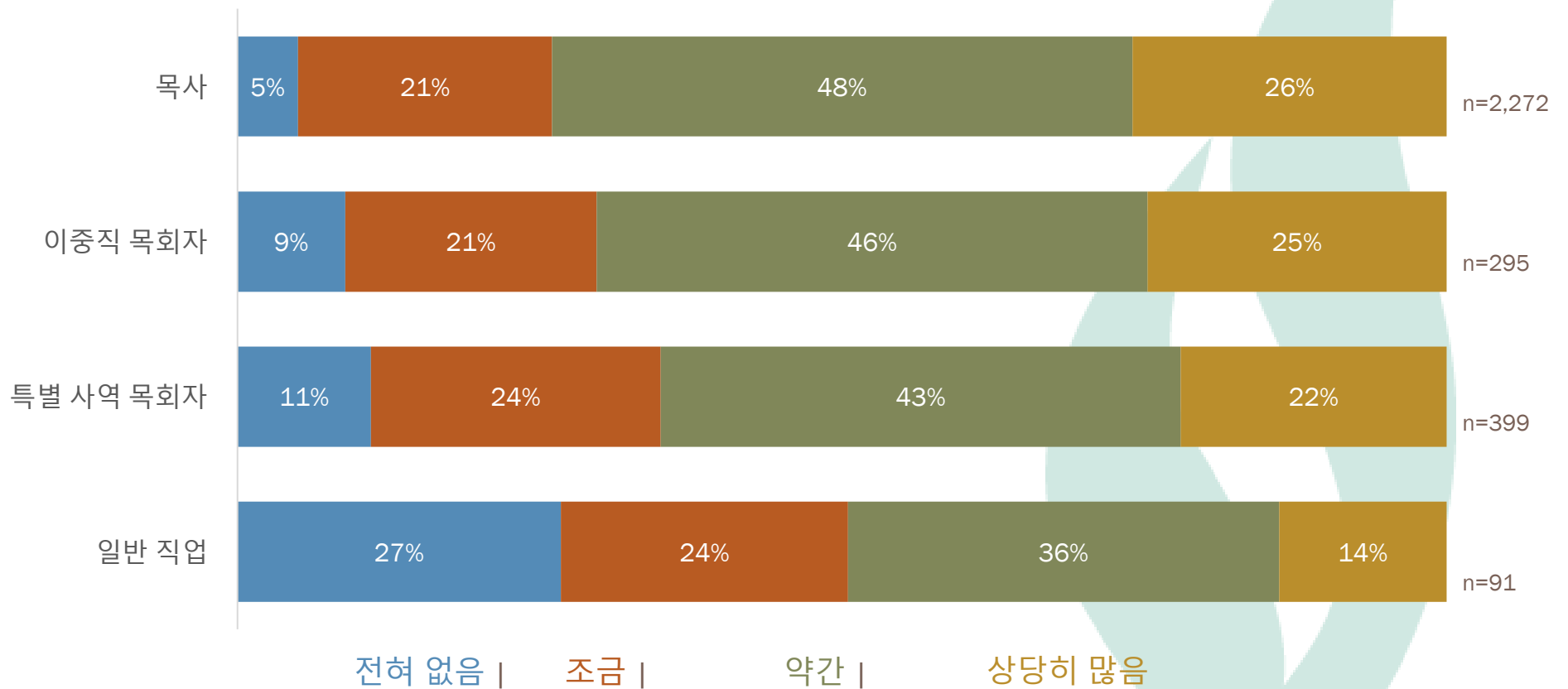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 직장을 갖고 있는 목회자는 노회로부터 정보를 받는 경우가 적다

사역하고 있는 이들 중에서, 특별 사역 목회자가 목사나 이중직 목회자에 비해 노회로부터 정보를 덜 받고 있다.

노회로부터 얼마나 정보를 받고 있는지 목회자들에게 물었다. 목사, 이중직 목회자, 특별 사역 목회자, 일반 직업을 지닌 목사 사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은퇴했으나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결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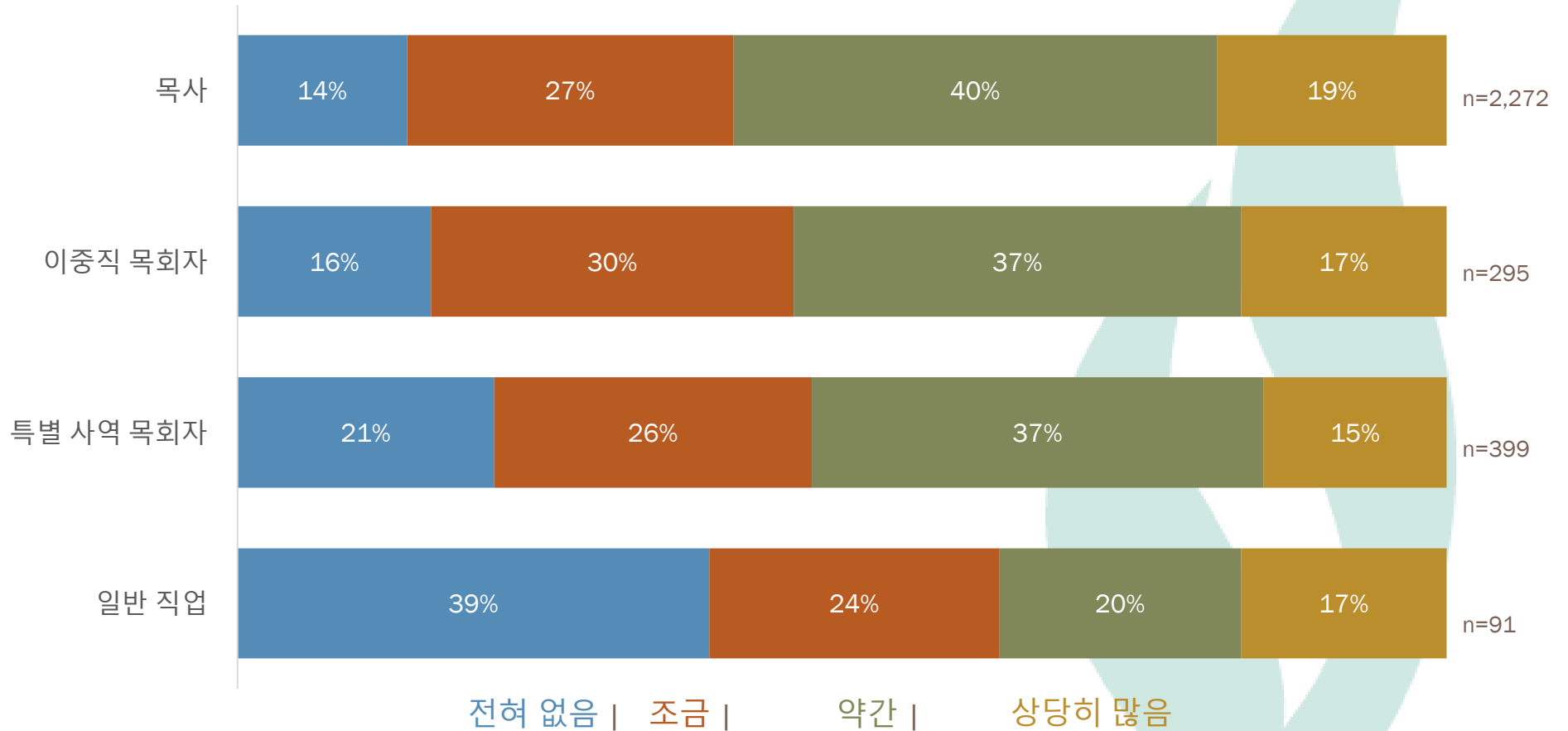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정서적 지원은 사역 중인 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다

일반 직장을 갖고 있는 이들은 노회로부터 가장 적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

노회로부터 얼마나 정서적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목회자에게 물었다. 목사, 이중직 목회자, 특별 사역 목회자, 일반 직업을 지닌 목사 사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은퇴했으나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결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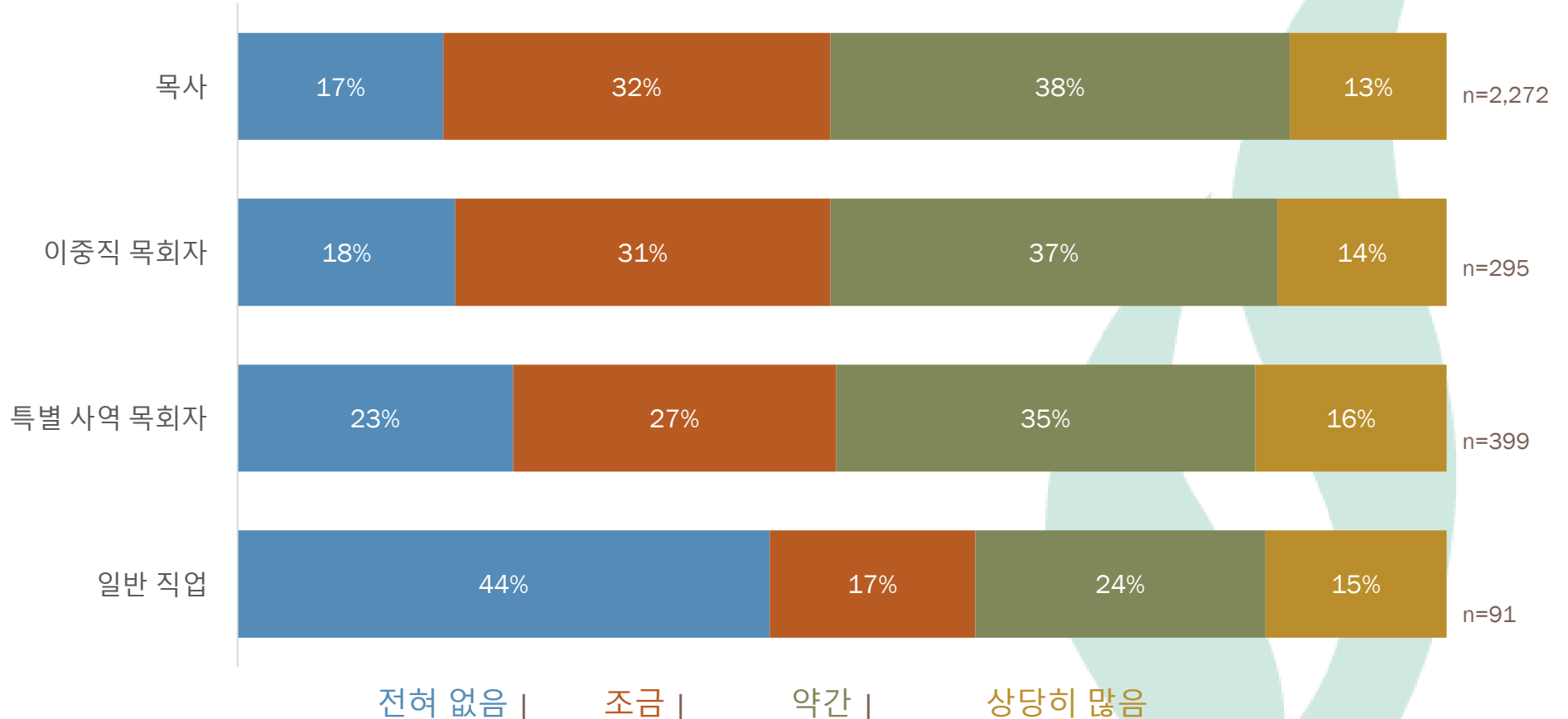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역하고 있는 이들은 기도 지원을 가장 높게 선택했다

일반 직장을 갖고 있는 이들은 노회로부터 가장 적은 기도 지원을 받고 있다.

노회로부터 얼마나 기도 지원을 받고 있는지 목회자들에게 물었다. 목사, 이중직 목회자, 특별 사역 목회자, 일반 직업을 지닌 목사 사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은퇴했으나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결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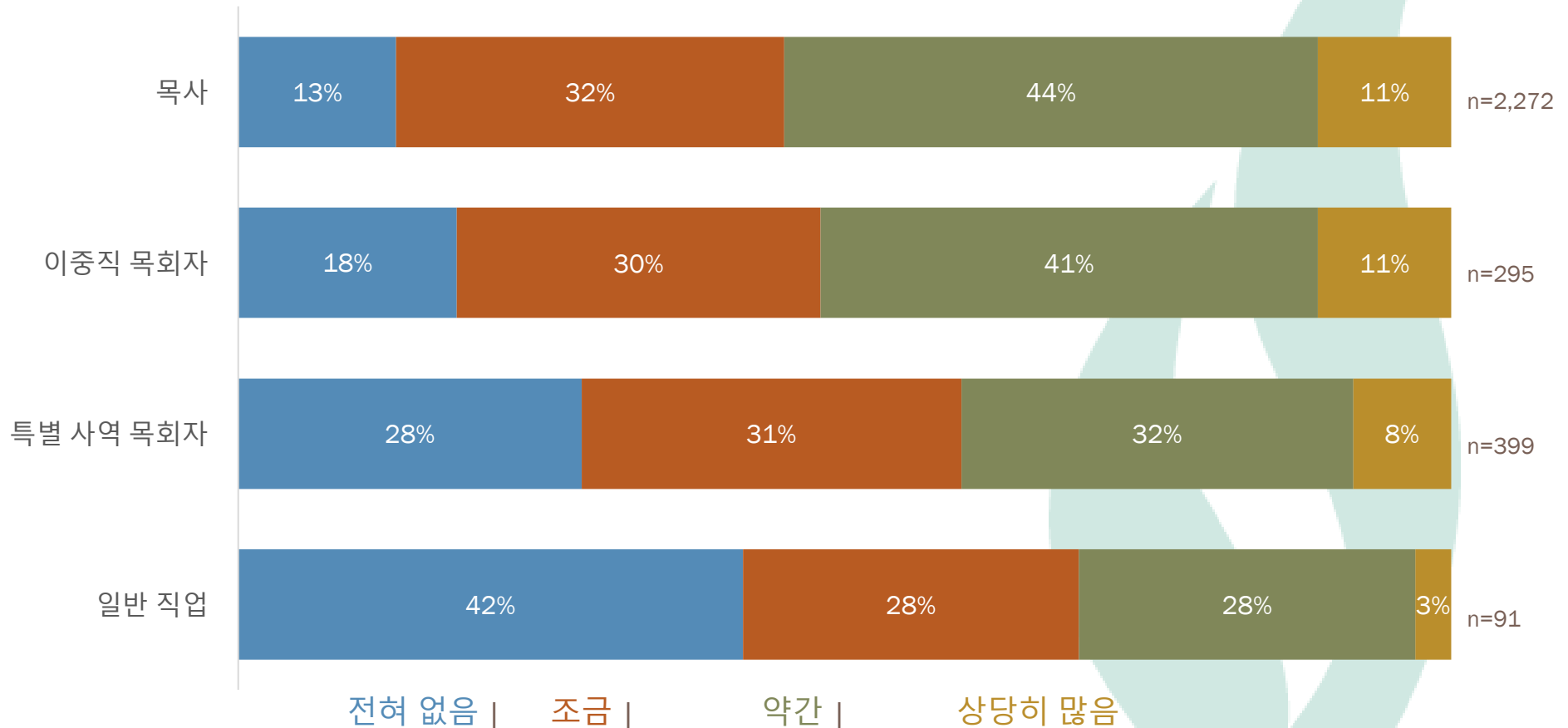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목사들이 노회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다고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일반 직장을 갖고 있는 이들은 조언에 대해 가장 적은 비율로 응답했다.

노회로부터 얼마나 조언을 받고 있는지 목회자들에게 물었다. 목사, 이중직 목회자, 특별 사역 목회자, 일반 직업을 지닌 목사 사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은퇴했으나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결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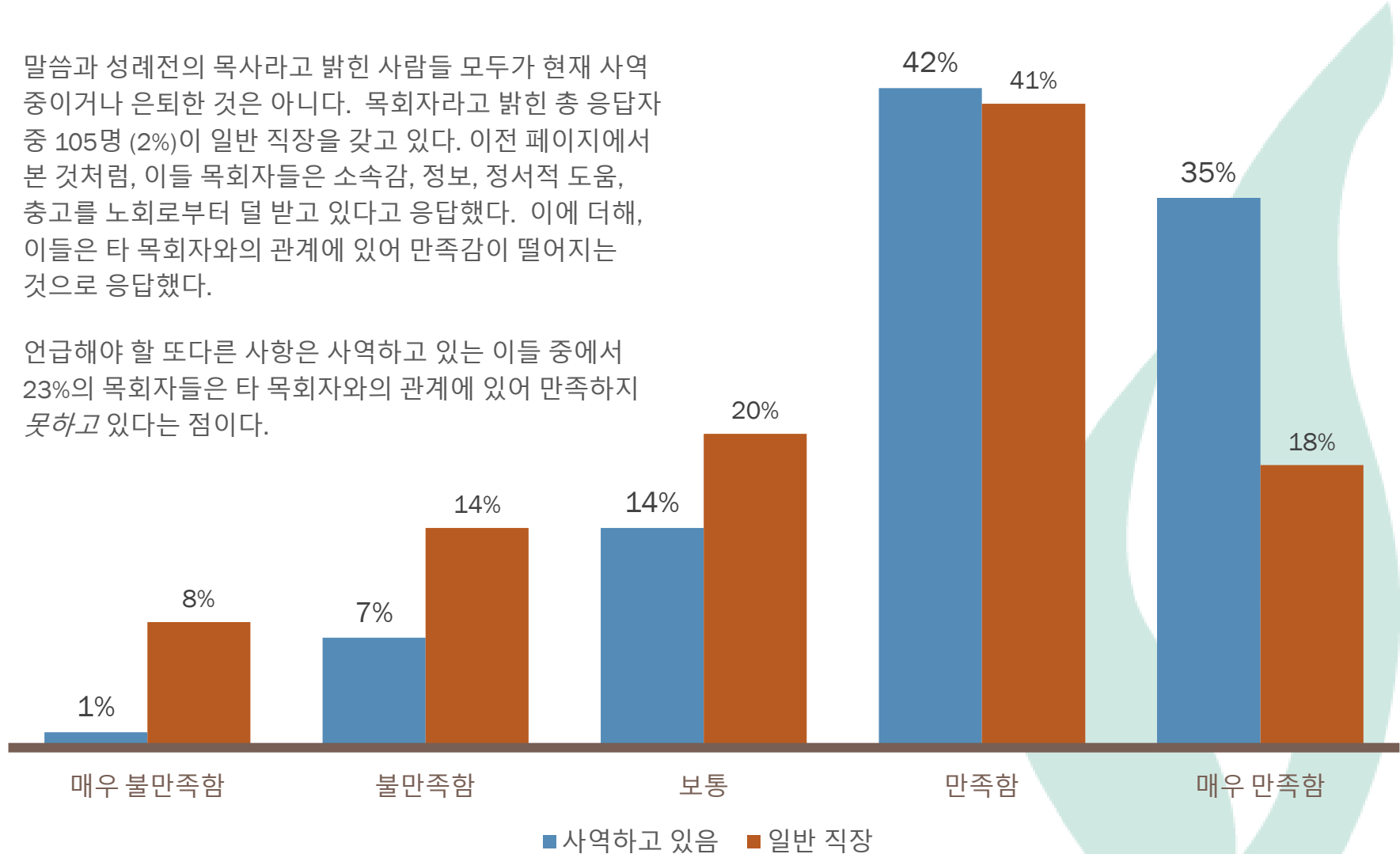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 직장을 갖고 있는 이들이 더 고립되어 있다

이들은 노회로부터 지원을 덜 받고 있고 타 목회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덜 만족하고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 밝힌 사람들 모두가 현재 사역 중이거나 은퇴한 것은 아니다. 목회자라고 밝힌 총 응답자 중 105명 (2%)이 일반 직장을 갖고 있다. 이전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이들 목회자들은 소속감, 정보, 정서적 도움, 충고를 노회로부터 덜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타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응답했다.

언급해야 할 또다른 사항은 사역하고 있는 이들 중에서 23%의 목회자들은 타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 사역 목회자의 88%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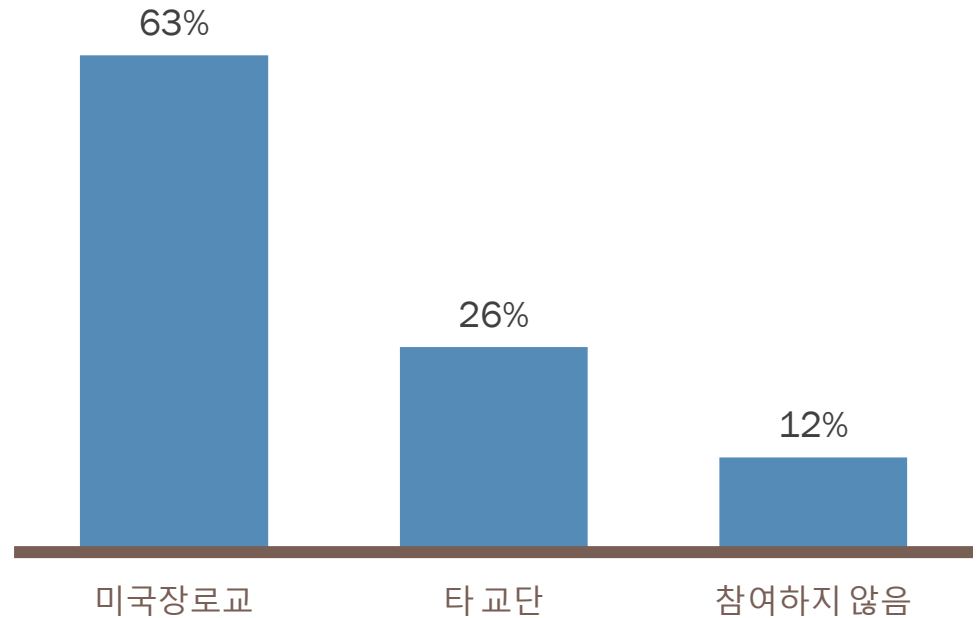
현재 사역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특정 교회나 예배 공동체의 예배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목사가 아닌 특별 사역 목회자의 63%가 미국장로교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예배 공동체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 분석을 한정하면, 미국장로교 교회나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71%로 증가한다.

은퇴한 상태에 있는 목회자들 내에서, 실제로 은퇴한 이들, 즉 현재 어떤 형태로든 사역이나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이 은퇴했으나 여전히 사역하거나 일하는 이들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1,117명이 이 질문에 대답을 했고 134명 (12%)만이 "아니다"라고 대답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아 통계적으로 확실한 분석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예배 공동체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목회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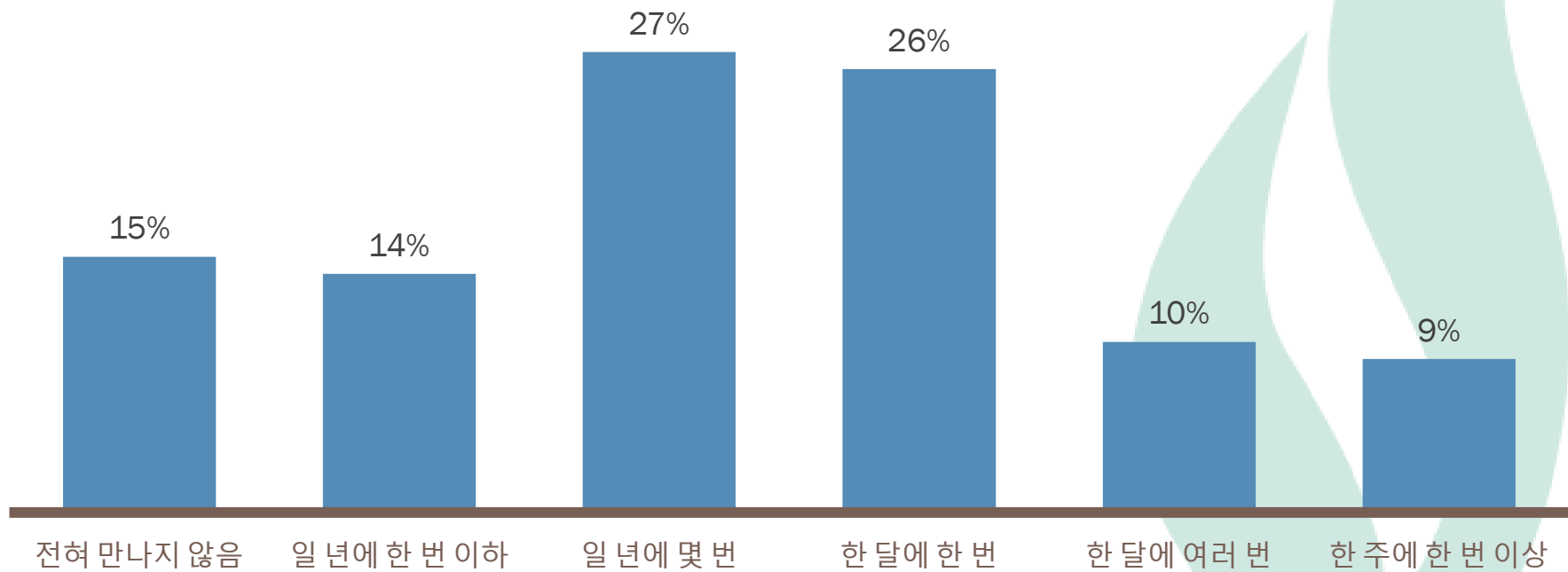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활동 중인 목회자의 85%는 묵상, 학습, 나눔을 위해 다른 목회자를 만난다

목사 또는 특별 사역 목회자로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의 약 절반 (45%)이 매달 또는 더 자주 다른 목회자들과 만나고 있다.

목사들은 이중직 목회자나 특별사역 목회자보다 더 자주 묵상, 학습, 나눔을 위해 다른 목회자들을 만나고 있다. 또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이들 중에서 은퇴한 상태의 목회자들은 아직 은퇴하지 않은 목회자들에 비해 다른 목회자들을 덜 만난다. 은퇴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의 45%가 매달 또는 더 자주 멘토, 영적 인도자 또는 영적 코치를 만나는 반면, 은퇴하고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의 31%, 은퇴하고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의 22%만 멘토나 영적 인도자를 만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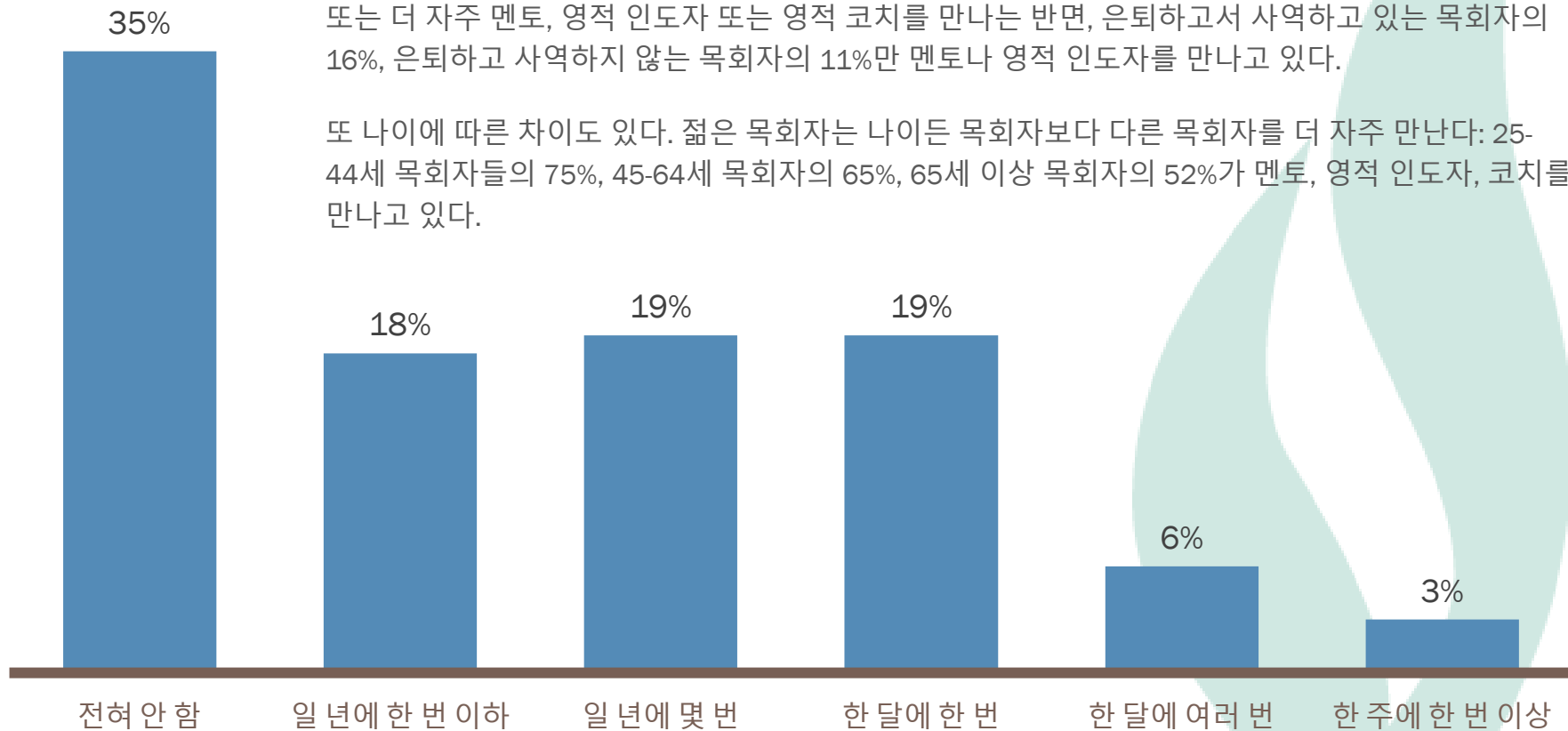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활동 중인 목회자의 65%가 멘토, 영적 인도자 또는 영적 코치를 만나고 있다.

목사 또는 특별 사역 목회자로(혹은 둘 다로)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의 약 4분의 1 (28%)이 매달 또는 더 자주 지도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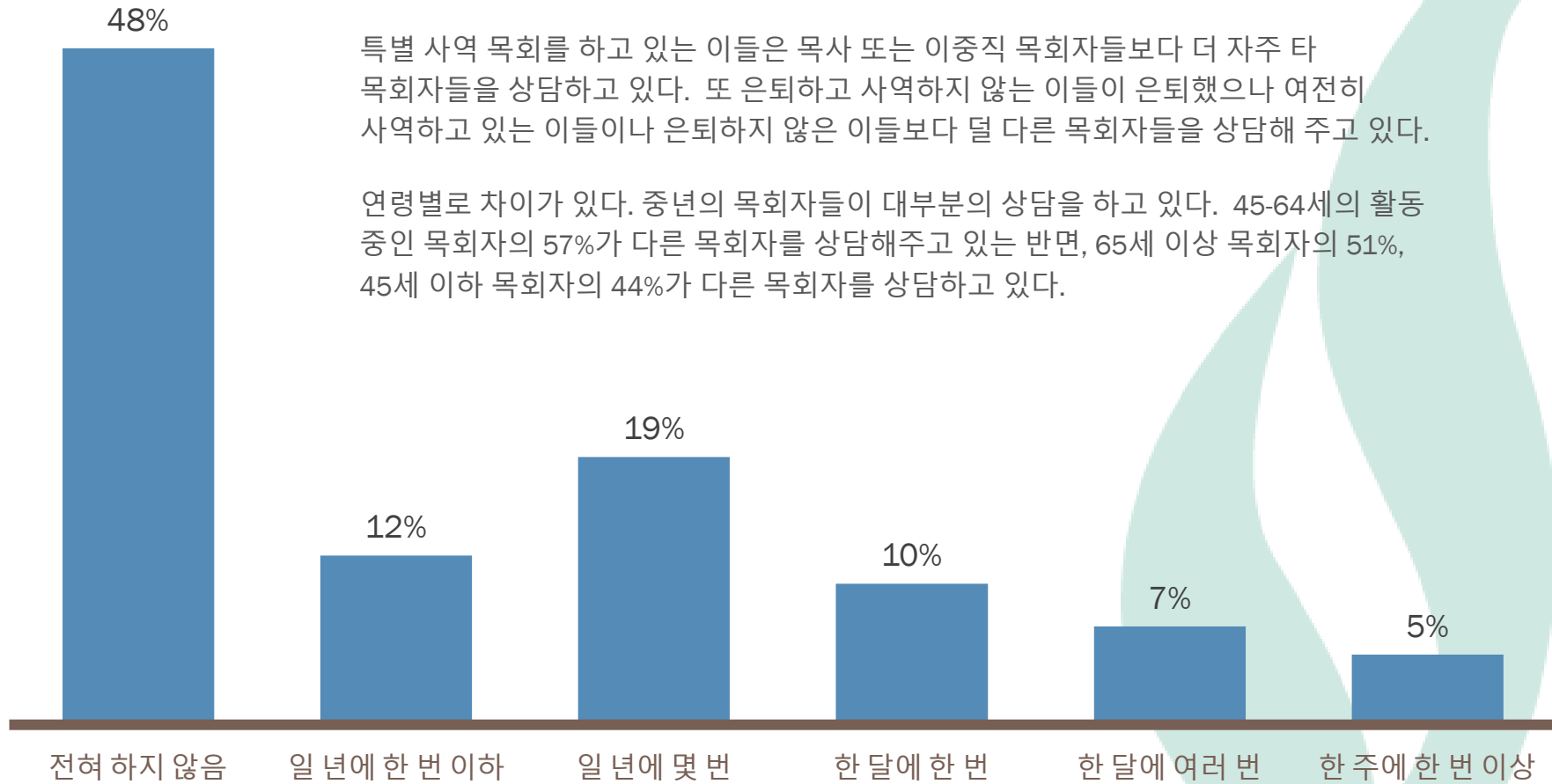
목사들은 멘토, 영적 인도자, 영적 코치의 인도를 이중직 목회자 또는 특별 사역 목회자보다 약간 덜 찾고 있다. 또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이들 중에서 은퇴한 상태의 목회자들은 아직 은퇴하지 않은 목회자들에 비해 이런 서비스를 덜 찾고 있다. 은퇴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의 29%가 매달 또는 더 자주 멘토, 영적 인도자 또는 영적 코치를 만나는 반면, 은퇴하고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의 16%, 은퇴하고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의 11%만 멘토나 영적 인도자를 만나고 있다.

또 나이에 따른 차이도 있다. 젊은 목회자는 나이든 목회자보다 다른 목회자를 더 자주 만난다: 25-44세 목회자들의 75%, 45-64세 목회자의 65%, 65세 이상 목회자의 52%가 멘토, 영적 인도자, 코치를 만나고 있다.



# 활동 중인 목회자의 52%가 다른 목회자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있다.

목사 또는 특별 사역 목회자로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의 약 5분의 1 (22%)이 매달 또는 더 자주 멘토링을 하고 있다.



특별 사역 목회를 하고 있는 이들은 목사 또는 이중직 목회자들보다 더 자주 타 목회자들을 상담하고 있다. 또 은퇴하고 사역하지 않는 이들이 은퇴했으나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이들과 은퇴하지 않은 이들보다 덜 다른 목회자들을 상담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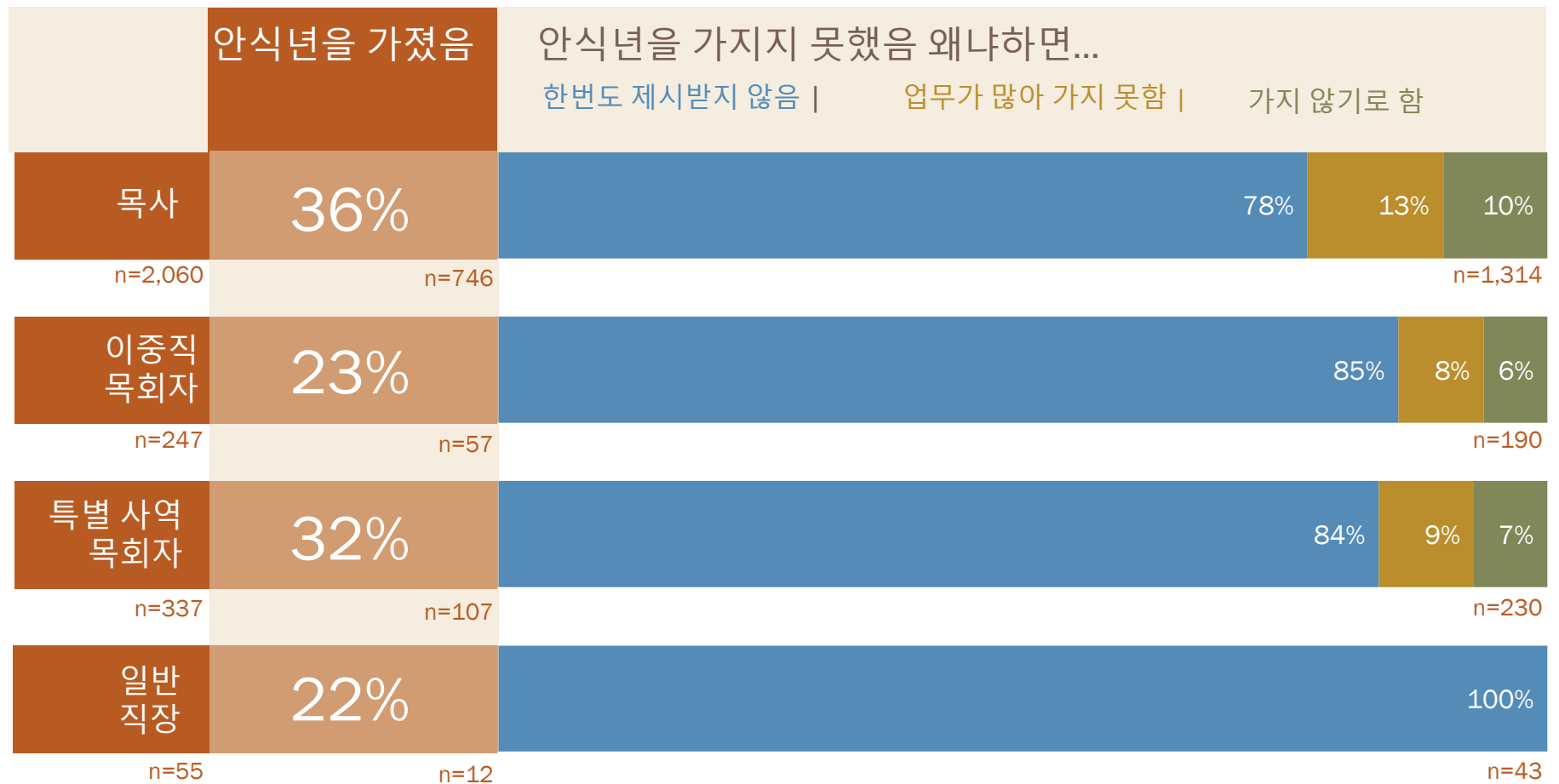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중년의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상담을 하고 있다. 45-64세의 활동 중인 목회자의 57%가 다른 목회자를 상담해주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목회자의 51%, 45세 이하 목회자의 44%가 다른 목회자를 상담하고 있다.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목회자의 34%가 안식년을 가진다

대부분의 활동 중인 목회자는 안식년을 한 번도 제안받지 못했기에 이를 누리지 못했다.

안식년을 갖지 못한 목회자들 중에서 80%는 고용주로부터 안식년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다르다. 활동 중인 목회자들 중에서 목사는 안식년을 가장 많이 받은 목회자들이지만, 안식년 기회를 거절할 가능성도 가장 높다. 왜냐하면 그들의 업무가 너무 많았거나, 그들이 단순히 이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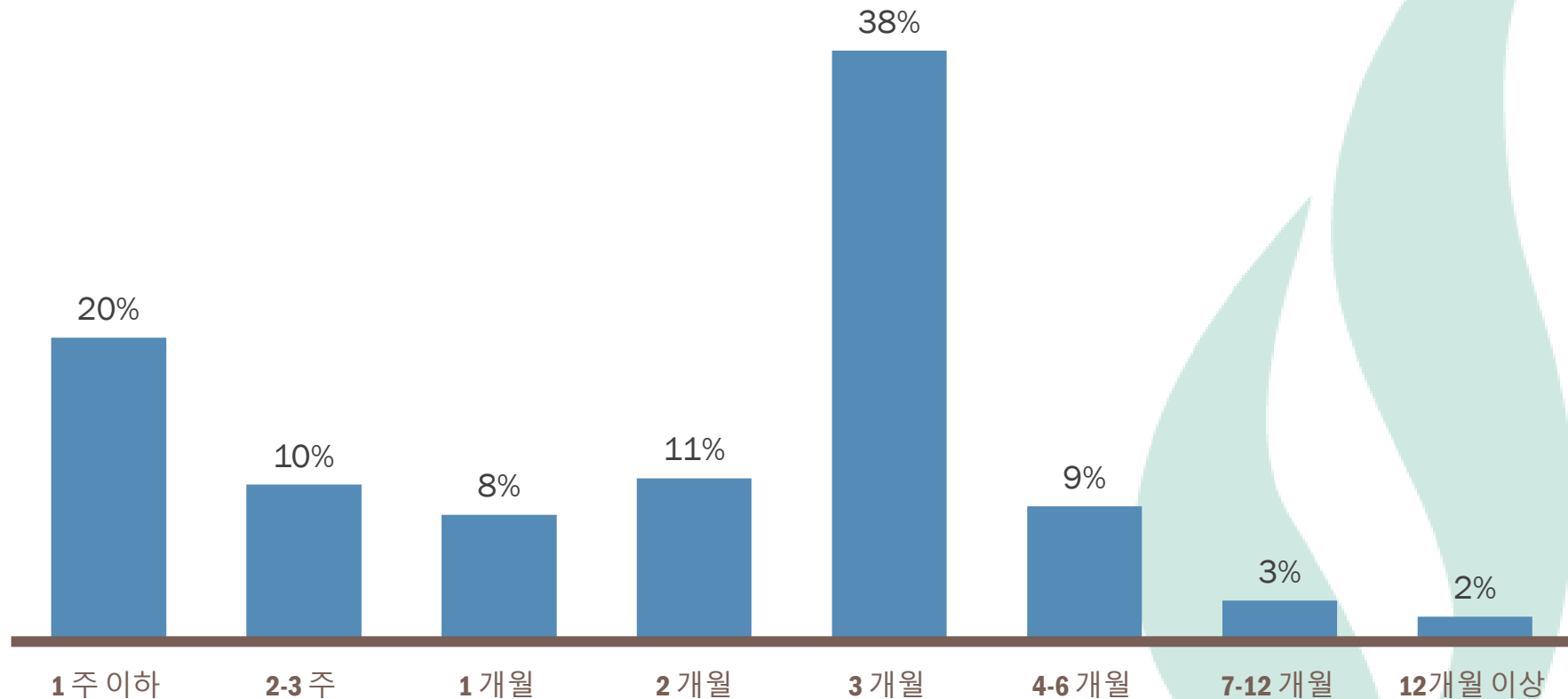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장 일반적인 안식년 기간은 3개월임

안식년 기간을 가졌던 응답자의 38%가 가장 최근의 안식년 기간이 3개월이었다고 응답했다.

2%의 소수 (n=23)가 12개월 이상의 안식년 기간을 가졌다. 이들이 대답한 설문문의 질문에서 안식년은 "일반적인 휴가 또는 평생 교육이 아닌 것으로서, 학습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정의한다.



백분율은 반올림 관계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목회자에 대한 지원에서의 발견 사항

목사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큰 지원을 받고 있다.

목회자 참살이 보고서의 이 항목은, 여러 면에서, 은퇴하지 않았으나 사역하지 않고 있는 목회자들이 느끼고 있는 지원의 부족에 대한 보고서다. 지원에 관한 모든 측정 면에서, 일반 직장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은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보다 더 낮은 평가를 내렸다.

노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소속감으로서, 이는 목사들에게 가장 크게 나타났다. 노회가 조언을 해주는 일에 있어 조언이 가장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안식년에 대한 결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의 38%만이 안식년을 가졌다.

다음은 목회자와 관련된 관심 사항이다:

- 목사의 64%가 안식년을 한번도 가지지 않았다
- 활동 중인 목회자의 55%는 묵상, 학습, 나눔을 위해 매달 또는 더 자주 다른 목회자들을 만나고 있지 않다
- 목사의 34%는 노회에 대한 소속감을 거의 또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 23%의 목회자들은 타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 특별 사역 목회자의 12%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목사, 특별 사역 목회자, 은퇴 목회자의 참살이에 대해 파악하는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다. 각 영역은 독립적인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다: 일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목회자에 대한 지원.

목회자의 건강에 관한 주제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다룰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참살이의 모든 측면을 다 다루진 않았다. 지면의 제약이 있었다. 이 설문조사가 대면 인터뷰였다면 각 개인에게 맞는 질문들을 하고 이에 따라 더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목회자들의 웰빙, 즉 참살이에 대한 나이, 성별, 사역 연수의 상호 영향력을 알아내고자 했던 몇몇 질문에 대해선 응답이 충분치 않아 자료에 대해 의미있는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



목회자 집단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

#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들의 사역, 삶, 지원 체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 은퇴 목회자

은퇴했지만 사역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 모든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가장 적은 탈진율을 보였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사역하고 있는 이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스트레스 수준이 적은 이유 중 하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게 따르는 가족 부양의 의무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이중직 목회자

이중직 목회자는 그들의 사례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평생 교육의 기회에 대해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했다. 이 이중직 목회자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탈진과 스트레스를 호소했지만, 모든 목회자 중에서 가장 높은 사명감과 소속감을 보였다. 이중직 목회자의 삶과 사역에 대해 더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 2021년 9월에 이중직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가 배포될 것이다.

## 목사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들 개인의 삶과 사명에 대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사역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을 상담해 주고 있다.

## 특별 사역 목회자

특별 사역 목회자는 그들의 경력과 삶의 여러 측면에 있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이다.

## 일반 직업 목회자

사역 이외의 일을 하고 있는 이가 노회로부터의 지원을 가장 낮게 보고했으며, 고립감은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4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도나 정서적 지원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했다. 100명 정도의 응답자들이 이 집단에 속한다고 응답했다.

# 목회자들은 지쳐있고 평생 교육을 더 원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노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 피곤

거의 절반의 목회자들이 그들이 지쳐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있으나 거의 3분의 1은 재충전의 시간,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종종 피곤은 교회 구성원이나 가족과 거리를 두게 되는 일로 연결된다. 잘 다루지 않으면, 피곤은 탈진(Burnout)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평생 교육

목회자들은 더 많은 평생 교육의 기회를 바라고 있다.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루거나 정신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이들과 관련된 평생 교육에 대한 흥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목회자 정신 건강 설문 보고서 (2021년 3월)에 기록되어 있다. 세계와 사회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그러나 목사(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들)를 위한 평생 교육의 기회는 원목, 군목, 교단 지도자와 같은 특별 사역 목회자들에게 제공되는 것들에 비해 뒤쳐지는 것 같다. 전염병 시대 속에서 살아가며 또 일하며,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는 교육 장소로 가야만 하는 사항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분이 잠시 일상을 멈추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평생 교육에는 비용이 따른다. 누가 이를 지불할 것인가? 이는 목사, 교회, 노회의 공동 부담인가 아니면 목사 개인의 책임인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평생 교육의 요건은 무엇인가?

## 지원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은 노회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목회자는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조연자/피조연자 관계에서 상호 지원을 보여주고 있다.

리서치 서비스는 미국장로교가 설문조사, 주요 대상 면접, 인구통계적 분석, 프로그램 평가 등을 이용해 데이터에 기초한 결정을 하도록 돕고 있다.

우리는 사회학, 공공정책, 경제학 등의 배경을 지닌 사회과학자들이다. 우리는 미국장로교 교회, 노회, 대회, 총회 기관 및 관련 조직을 섬기고 있다. 리서치 서비스는 행정서비스 그룹의 사역이다.

질문이 있거나 이 보고서의 사본을 원할 경우, 다음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십시오.  
502-569-5077로 전화주시거나 [research@pcusa.org](mailto:research@pcusa.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RESEARCH  
SERVICES**